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1-1

박영민 외

정답과 해설

1 문학과 매체로 여는 소통의 창

01 깊이 감상하고 넓게 표현하기

제재 01 본책 10~11쪽

1 ③ 2 ⑤ 3 ③ 4 ①

1 이 시에는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기쁜 일'과 '고운 노래'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다고 표현한 활유가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가장', '고운', '노래' 등의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참새들이 빗방울을 쪼는 모습을 피아노 치는 모습으로, 나뭇가지에서 빗방울이 튕겨 나오는 모습을 즐거운 노래가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여 음악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④ '아 ㅡ'에서 감탄사를 활용한 영탄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봄날 아침의 풍경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기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간밤에 봄비가 내린 후 아침의 생기 넘치는 풍경을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2 이 시는 다양한 비유와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여 봄비가 내린 후의 아침 풍경을 감각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3 운율은 단어나 문장 구조 등의 반복과 의성어·의태어 사용으로 만들어진다. 제시된 시구 중 '간밤에 내린 봄비'에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4 이 시는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를 통해 봄날 아침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노래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기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 상징적 소재나 말하는 이의 다짐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재 02 본책 12~13쪽

1 ⑤ 2 ② 3 숲, 마을 4 ②

1 이 시는 '내'와 '고개'를 지나 '숲'과 '마을'로 향하는 1연의 내용을 5연에서도 반복하며,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말하는 이는 시련과 고난을 지나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실적 어려움을 고백한 것과 거리가 멀다.

2 이 시의 '길'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길로, 인생(삶)을 상징한다. 고난과 시련은 이 시에서 '내'와 '고개'의 상징적 의미에 해당한다.

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물이 흐르고 비탈져서 지나가기 어려운 '내'와 '고개'를 지나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인 '숲'과 '마을'로 향하고 있다. 이는 말하는 이가 '내'와 '고개'라는 시련을 지나 '숲'과 '마을'이라는 희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4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작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주제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단어와 문장 구조의 반복이나, 1연과 5연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이 나타나고 있다.

④, ⑤ 이 시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책 14~17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① 07 ③
08 길 09 ② 10 ② 11 ⑤ 12 ① 13 ④
14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15 ① 16 ④ 17 ②
18 ① 19 수미상관

01 '간밤에 내린 봄비 중에'를 통해 봄비는 현재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봄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의 장면은 이 시의 영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02 이 시는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단어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이 시의 2연에서는 참새들이 빗방울 중에서도 가장 고운 빗방울만을 골라 피아노 치듯 쪼고, 이때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을 '즐거운 노래'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04 [A]는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기쁜 일'과 '고운 노래'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보기〉에는 이러한 활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비유가 사용된 [A]가 〈보기〉보다 더 친근하고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②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비유는 [A]에만 나타난다.

③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표현은 대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A]와 〈보기〉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⑤ 대상이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의인이다. [A]에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행동은 동물도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활유에 해당한다.

05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그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같은 말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운율에 대한 설명이다.

06 이 시의 4연 중 '오늘도…… 내일도……'에서는 마침표가 아닌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말인 의성어·의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④ 자연물에 말하는 이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나, 앞에서는 풍경을, 뒷부분에는 정서를 드러내는 구성은 이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1연을 5연에서도 반복하는 것은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

07 말하는 이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고 하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08 이 시에서 인생(삶)을 상징하는 시어는 말하는 이가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말하는 이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인생(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9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내'와 '고개'를 지나 '숲'과 '마을'로 향하고 있다. 이는 고난과 시련을 지나 희망과 평화의 공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와 '마을'은 상징적 의미가 서로 대조되는 시어이다.

10 이 시는 '길'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말하는 이의 꾸준한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읽은 독자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민들레'와 '까치'는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 생명 존중이나 보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

③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쉬어 가는 태도를 가지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⑤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태도, 경쟁 끝에 목표를 이루는 내용은 이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11 시에서는 시적·예술적 효과를 주기 위하여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잘못 사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를 통해 봄날 아침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상징을 통해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말하는 이는 시에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나)의 말하는 이는 '나의 길'에서 '나'라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다.

③ (나)는 3연을 기준으로, 1, 5연과 2, 4연이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

④ (가)는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단어와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나)는 단어와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여 시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12 ㉠의 '피아노 치듯'은 직접 연결하는 말인 '~듯'을 사용하여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원관념)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보조 관념)으로 표현한 직유가 사용되었다. ㉡의 '즐거운 노래'는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원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즐거운 노래'(보조 관념)로 빗대어 표현한 은유가 사용되었다. ㉢의 '고운 노래만 풀풀 / 날아다닙니다.'는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고운 노래'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날아다닌다고 표현한 활유가 사용되었다.

13 (나)에서 말하는 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길을 걸어가는 상황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꿈이나 목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4 이 시의 3연에서 말하는 이가 길을 걸어가다 만난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를 상징한다.

15 (가)는 '가장', '고운', '노래' 등의 시어와 '-골라 -ㅂ니다' 등의 문장 구조가, (나)는 '길'이라는 시어와 '-(어)서 -로' 등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④ (가)와 (나)는 각 행의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시작 부분에 동일한 단어, 어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③ 첫 연과 끝 연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수미상관은 (나)에만 나타난다.

⑤ (가)는 '쫑쫑', '톡톡', '팔짝팔짝', '풀풀'의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나)는 의성어·의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16 (가)는 생기 넘치는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나고 있으며, (나)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17 ㉠의 '피아노 치듯'은 무언가를 누른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원관념)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보조 관념)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18 (나)의 '숲'은 이루지 못한 꿈이나 목표가 아닌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말하는 이가 향하고 있는 곳이다.

19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며,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발전 학습

본책 18~21쪽

1 ④ 2 ⑤ 3 ④ 4 ③ 5 ③ 6 ③ 7 ③ 8 ②

1 이 글은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화이자, 허구적인 이야기인 소설이다. 소설은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배열해야 하며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성 단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전문 작가가 주로 쓰며,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쓰는 글은 수필이다.

2 이 글은 파랑새를 찾기 위해 특별한 모험을 하는 꿈과 현실이 교차되며 동화적, 우화적, 환상적,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비판적인 내용이나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엄마는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아빠는 아이들을 안아 주며 걱정할 것 없다고 한다. 따라서 아빠가 틸틸과 미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① 틸틸은 파랑새를 찾지 못해서 이웃집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② 틸틸과 미틸은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 특별한 모험을 한다.

③ 엄마는 잠에서 깬 틸틸과 미틸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당황한다.

⑤ 할머니는 아이들의 꿈에 나온 인물로, 알 듯 말 듯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아 아이들이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다.

4 이 글의 틸틸과 미틸은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한 모험을 하다가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를 만나 파랑새를 찾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틸틸과 미틸이 화려한 집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은 앞부분 줄거리에 나오는 내용이다.

②, ⑤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④ 꿈속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이 글의 등장인물 중 가족인 틸틸과 미틸, 엄마, 아빠 사이에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 환상적인 모험을 하는 꿈 속 세계와 꿈에서 깬 뒤의 현실이 교차되고 있다.

② 두 남매인 틸틸과 미틸이 꿈 속에서 파랑새를 찾다가 잠에서 깨고, 마침내 현실에서 파랑새를 찾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꿈과 현실이 교차되며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동화적인 이야기 안에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⑤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통해 진짜 행복은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6 틸틸은 파랑새를 찾은 후,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틸틸은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집이 아름다워졌다고 말한 것이며, 실제로 집이 변한 것은 아니므로 ③은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7 틸틸과 미틸이 꿈속에서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사실은 집 안에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의 파랑새는 일상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상징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낸 매일의 시간이 이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8 이 글은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독자도 자신의 주변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고난도 업 심화 문제

본책 22~25쪽

01 ④ 02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이는 은유를 사용한 것이다. 03 ① 04 ③ 05 ⑤ 06 ⑤ 07 ① 08 ④ 09 내, 고개 10 ⑤ 11 ③ 12 ② 13 시를 읽는 즐거움을 준다.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시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한다. 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 중 두 가지) 14 ② 15 ⑤ 16 ⑤ 17 ② 18 ③ 19 틸틸은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01 이 시는 직유, 은유, 활유와 같은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봄날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아—'에서 영탄법을 통해 봄날 아침의 풍경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기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02 '즐거운 노래'는 나뭇가지에서 튕겨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말 없이 비유하는 은유가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이 시의 시어를 활용하여 원관념을 바르게 썼다.	
비유의 종류 중 은유를 사용하였음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3 이 시는 지난밤 봄비가 내린 후 아침의 생기 넘치는 풍경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봄비가 내리는 풍경은 표현하지 않았다.

04 [A]에서는 '기쁜 일'과 '고운 노래'가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다고 표현하였으며, 〈보기〉는 이 대상이 미소 짓고 손을 흔든다고 표현하였다. [A]의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것은 동물이 할 수 있는 행동인 데 반해, 〈보기〉의 미소 짓고 손을 흔드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 오답 풀이 | ① [A]는 '팔짝팔짝', '풀풀', 〈보기〉는 '화알짝', '살랑살랑'과 같은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A]와 〈보기〉 모두 대상이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④ [A]와 〈보기〉 모두 비유를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효과적이고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⑤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표현 방법이므로 [A]와 〈보기〉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05 이 시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인 상징은 사용되지 않았다.

06 이 시에 시련을 상징하는 '내', '고개'와 같은 시어가 나타나지만 이는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희망,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시어를 사용하여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새로운 길'은 말하는 이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이자 인생(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화로운 안식처와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 ② 말하는 이는 길을 가면서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과 같은 다양한 존재를 만나고 있다.

③ 말하는 이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

④ 말하는 이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길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

⑤ 말하는 이는 자신이 가는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고 하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08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길을 걸어가면서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과 같은 다양한 존재를 만나고 있으나, 그들의 도움을 받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보기〉의 '나'는 변함없는 자세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맞는 '바람'과 '눈비'는 '나'가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는 시련인 '내', '고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10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자신의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고 있으므로, 좌절한 민수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하라는 말을 해 줄 수 있다.

11 (가)에서는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맺힌 빗방울을 피아노를 치듯 쪼자 튕겨 나오는 빗방울을 '즐거운 노래'라고 하여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에서 피아노 연주에 맞춰 짹짹거리는 참새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12 (가)에는 운율과 비유(직유, 은유, 활유)가 나타나고, (나)에는 운율과 상징이 나타난다. ②는 문장 안에서 순서를 뒤바꾸어 표현하는 도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와 (나)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13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리듬감을 느끼게 하여 시를 읽는 즐거움을 주고, 시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해 준다. 또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평가 기준	확인
운율의 효과 중 두 가지를 바르게 썼다.	
각각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14 (나)의 말하는 이는 묵묵히 길을 걸어가며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속담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②이다.

| 오답 풀이 | ①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는 그만큼 견고하게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③ 크고 작고, 이기고 지고, 잘하고 못하는 것은 실제로 겨루어 보거나 겪어 보아야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위급할 때는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잡고 늘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다듬고 만들어야 가치가 생김을 의미한다.

15 ㉤의 '내'는 물이 지나가 건너기 어려우므로 살면서 만나는 시련을 상징하지만, '숲'은 생명이 있는 공간으로서 희망과 평화의 공간을 상징한다.

16 이 글은 작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내용의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17 소녀가 일부러 파랑새를 날려 보낸 것이 아니라, 파랑새가 소녀의 손에서 빠져나가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것이므로 ②의 질문은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다.

18 틸틸은 ㉠과 같이 말하면서 새장을 보고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따라서 틸틸은 새장 안에 파랑새가 있는 것을 몰랐음을 알 수 있다.

19 틸틸은 꿈에서 찾아 헤매던 파랑새를 집에서 발견한다. 그 뒤에는 파랑새가 날아가 버려도 슬퍼하지 않고 소녀를 달래며 ㉡과 같이 말한다. 이는 틸틸이 '파랑새'가 상징하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틸틸의 깨달음을 바르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2 상호 작용적 매체를 분석하기

본책 28~33쪽

활동 학습

1 ④ 2 ③ 3 ④ 4 ③ 5 ⑤ 6 ② 7 ①
8 ① 9 ④ 10 ④

1 (나)는 방송국 누리집으로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방송국 누리집에 올라온 기사를 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소통하고, 이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수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방송국 누리집에 올라온 기사를 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② 상호 작용적 매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나)의 기사를 본 사람들도 서로 다른 공간에서 댓글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⑤ 예매처가 궁금하다는 의견이 댓글로 달리자, 기사에 관련 정보가 추가되고 있다. 이는 댓글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기사에 반영된 것이다.

2 (가)에 나타나듯이 텔레비전은 시·공간의 제약이 있으며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상호 작용적 매체가 아니다.

3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소통 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개인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높임 표현도 사용하지 않은 ④는 적절하지 않다.

4 신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글이며, 쓰담 달리기 행사에 참여한 소감과 함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자신의 생각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게시 글에 이를 읽은 친구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우주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 글에 쓰담 달리기에 참여하며 강아지를 만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 게시 글에 쓰담 달리기를 하며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의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6 해시태그는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를 달아 게시물의 주요 단어를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연관된 정보가 묶여서 다른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하기에 유용하다. 또한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는 해시 뒤의 문구는 붙여서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ㄴ. 해시태그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뿐 아니라 블로그나 온라인 대화방 등에서도 사용된다.

ㄹ. 더 알아보고 싶은 단어나 문구가 아니라 게시물의 주요 단어에 붙인다.

7 〈보기〉는 우주의 게시 글에 달린 댓글에 또 다른 댓글이 달리며 수용자끼리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8 (가)는 뮤지컬 줄거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뮤지컬을 본 자신의 감상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뮤지컬을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소통 목적만 지닌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뮤지컬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던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③ 블로그의 게시 글을 읽은 수용자들이 댓글을 남기고 있다.

④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도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라고 하였다.

⑤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여 주는 사진을 게시하며 줄거리를 설명하고 있다.

9 온라인 대화방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토론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일상 대화를 주고받으며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10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는 소통 맥락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며 신중한 태도로 소통해야 한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책 34~39쪽

01 ② 02 ④ 03 블로그, 온라인 대화방 04 ④ 05 ⑤
06 ⑤ 07 ① 08 ③ 09 ③ 10 ① 11 ④
12 연관된 정보가 묶여서 다른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하기에 유용하다. 13 ④ 14 ⑤ 15 ⑤ 16 ③ 17 ⑤ 18 ④
19 ③ 20 ③ 21 ③ 22 ④ 23 학교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24 ③

01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이용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우므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02 (나)는 상호 작용적 매체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가)는 상호 작용적 매체가 아니므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텔레비전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간에 있는 가족끼리만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나)의 누리집에서는 수용자들끼리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

② (나)는 댓글에 나타난 의견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수정되며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는 생산자의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③, ⑤ (가)는 텔레비전을 통해, (나)는 방송국 누리집을 통해 고궁 야간 개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수용자들이 소통하고 있다.

03 상호 작용적 매체는 (나)와 같이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이다. 〈보기〉의 영화, 신문, 라디오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상호 작용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휴관일을 알리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05 (다)는 누리집의 글을 읽은 사람들이 각자가 위치한 공간에서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댓글을 쓰기 전에 (가)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준후와 윤서는 (가)의 대화를 나눈 뒤 상호 작용적 매체인 학교 누리집을 활용하여 (나)를 작성했다.

④ (다)는 학교 누리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댓글이다.

06 (나)는 쓰담 달리기 행사의 내용을 알리며, 많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쓰담 달리기의 의미와 효과, 참여 대상과 준비물 등은 나타나 있지만, 참여자 모집 기간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07 (가)의 준후의 말과 (나)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나)는 쓰담 달리기와 관련한 공지를 올려서 행사를 홍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08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소통 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은 '김민서'라는 특정 개인에게 함께 행사에 갈 것을 제안하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높임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09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상호 작용적 매체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0 (가)에서 신비는 쓰담 달리기에 참여한 소감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나)에서 우주는 쓰담 달리기에 참여하며 강아지를 만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11 (가)에서 신비는 격식을 지켜 표현하며, 청자를 높이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나)에서 우주는 신조어나 이모티콘 등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가)의 게시 글은 '전체 공개'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글이고, (나)의 게시 글은 '친구 공개'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상의 친구만 볼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도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12 해시태그는 특정한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를 붙이는 기능을 말한다. 주요 단어에 해시태그를 달면 연관된 정보가 묶여서, 상호 작용적 매체를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하기에 유용하다.

평가 기준	확인
정보를 검색할 때 유용하다는 점을 썼다.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13 (가)와 (나)는 모두 상호 작용적 매체로, (가)는 게시 글에 댓글이 달리며, (나)는 대화방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오답 풀이 | ①, ③ (가)는 뮤지컬에 대한 정보와 감상을 공유하고, (나)는 친구들과 일상 대화를 주고받으며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가)의 수용자는 댓글을 통해 반응하고 있고, (나)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반응하고 있다.

⑤ (가)는 자신이 본 뮤지컬의 줄거리와 감상을 사진과 글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나)는 짧은 대화를 통해 각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14 (가)의 블로그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연락처와 같은 개인적인 정보는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15 (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친한 친구들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가 이사 가는 상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각자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16 (나)의 온라인 대화방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대화방에 소속된 상대와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다.

17 (가)는 춤 연습 동영상을 게시한 글에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며 소통하고 있다. (나)는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고객의 질문 글에 관계자가 답변을 남기며 소통하고 있다.

18 ㉠은 평가를 받기 위한 글이 아닌데도 불필요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 글에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

19 ㉡은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는 ③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질문을 잘못 이해하지는 않았으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② 답변자는 '사용법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ㅠㅠ'라고 하며 질문자에게 공감하고 있다.

④ ㉡은 비교적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은 이모티콘 등 격식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높임 표현은 사용하였다.

20 제시된 상황에서는 청소년 영화제 관련 정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싶다고 하였다. 따라서 친구와의 실시간 소통에 적합한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하려고 한 ③이 가장 적절하다.

21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할 때는 소통 맥락을 고려하였는지, 언어 표현이 적절한지, 신중한 태도로 소통했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무조건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2 (나)의 '지훈'은 우주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댓글을 달고 있다. 이 게시 글은 '친구 공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또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격식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23 (가)는 쓰담 달리기와 관련된 행사를 공지하고 있는 학교 누리집이고, (나)는 우주의 생각,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다.

24 블로그는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글,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는 공간이다. 댓글을 통해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은 온라인 대화방이다.

| 오답 풀이 | ① 블로그의 글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라면 타인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② 한 편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많은 정보를 담은 글을 쓸 수 있다.
④ 블로그에서는 자신의 관심사를 주제별로 항목을 나누어 쓸 수 있다.
⑤ (다)에서와 같이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직접 올릴 수 있고, 다른 자료를 링크할 수도 있다.

발전 학습

본책 40쪽

1 ⑤ 2 ④

1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페이지를 공유하여 자료를 올리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이다.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협업하기에 적절한 매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둔 매체라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① 상호 작용적 매체이므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②, ③ 페이지를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리고, 여러 사람이 마치 담벼락에 낙서를 하듯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이다.
④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글과 함께 다양한 시각 자료를 직접 올리거나 다양한 자료를 링크할 수 있다.

2 평가를 받기 위한 게시물이 아닌데도 ④는 불필요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비판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댓글이다. 댓글을 달 때는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 등이 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난도 UP 심화 문제

본책 41~43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② 05 ⑤ 06 ③
07 제품 누리집 게시판은 공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은 격식에 맞지 않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08 ④ 09 ⑤ 10 ② 11 ②

01 텔레비전은 상호 작용적 매체가 아니며 방송으로 한번에 송출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02 (가)에서는 텔레비전에서 아나운서가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보기〉 또한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좋네요!'라고 하는 '진달래'의 댓글을 통해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와 〈보기〉는 모두 생산자가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④ '무지개구름'의 댓글을 통해 수용자가 궁금해 하던 내용이 정보의 생산자에게 전달되어, 해당 내용이 기사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수용자들이 기사를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03 (나)의 글쓴이는 뮤지컬 「빌리 엘리엇」을 볼 것을 추천하고 있지만, 이는 권유하는 것일 뿐 자신의 주장대로 행동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공간을 활용할지 고려하여 블로그를 선택했을 것이다.
② 뮤지컬 「빌리 엘리엇」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소개 방법에 대해 고려했을 것이다.
③ 블로그는 게시 글의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했을 것이다.
④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고 있으므로, 어떤 사진을 사용할지 고려했을 것이다.

04 (나)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대화방에 소속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매체이다. 반면 (가)는 방송국 누리집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댓글을 통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다.

05 '무지개구름'은 예매 관련 정보가 기사에 추가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기자는 기사의 내용을 수정했을 뿐 직접 댓글을 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진달래'는 자신도 가고 싶다고 하며 예매처를 궁금해하고 있다. 고궁에 다녀왔던 경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예서아빠'는 입장권이 빨리 매진될까 봐 염려하고 있을 뿐, 예매에 실패했다고 하지는 않았다.

④ '초코맛사탕'은 예매에 성공했던 방법을 한 가지만 공유하고 있다.

06 (나)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고 있으나, 줄임말을 사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신조어나 이모티콘 등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

07 ㉠은 제품과 관련된 공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공간에서 이모티콘과 같이 격식에 맞지 않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제품 누리집 게시판의 소통 공간이 지닌 특성을 알맞게 썼다.	
㉠의 소통 방식이 부적절한 이유 두 가지를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8 (가)는 쓰담 달리기를 한 후의 소감과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고, (나)는 직접 만든 케이크 사진과 함께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 (나)는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는 글로 (가)와 (나) 모두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의 게시 글을 읽은 수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사진 자료를 글과 함께 게시했으나 참고할 만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의 게시 글에서 신조어나 줄임말, 이모티콘을 사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9 (나)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으로, 페이지를 공유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리고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의 행사에 초대하는 글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온라인 협업 플랫폼이라는 매체의 성격과 맞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생각,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수용자끼리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진을 공유하거나 경험을 기록하고, 식당을 친구들에게 알려 주는 것은 가능하다.

④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페이지를 공유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올리고 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모둠별로 과제를 올리고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10 (가)에 제시된 '신비'의 게시 글은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이다.

11 (나)는 상호 작용적 매체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이를 상호 작용적 매체가 아닌 학급 신문으로 바꾸면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44~47쪽

01 ③ **02** ③ **03**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04** ⑤ **05** ④ **06** ④ **07** 봄날 아침 **08** ③
09 ③ **10** ③ **11** ⑤ **12** ⑤ **13** ⑤ **14** ② **15** ④

01 (가)는 '-골라 -ㅂ니다' 등의 문장 구조, '가장', '고운' 등의 단어를 반복하고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나)는 '-고'의 문장 구조, '길' 등의 단어를 반복하고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비유 중에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직접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라고 한다. '피아노 치듯 쫑쫑 눌러 봅니다.'는 '-듯'을 활용하여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모습(원관념)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03 '길'은 인생과 삶을 상징하므로,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라는 의미를 담아서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4 ㉤에서 마침표 대신 말줄임표를 사용한 것은 여운을 남기는 표현이다. 말하는 이는 길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는 대상이 아닌, 과거와 현재도 그랬듯이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 오답 풀이 | ① '간밤에 내린 봄비'라고 하였으므로 지난밤에 봄비가 내렸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장 고운 빗방울'에서 나뭇가지에 곱고 아름답게 맺힌 봄비를 떠올릴 수 있다.

③ 말하는 이는 '고개'를 지나 '마을'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고난을 지나 희망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④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말하는 이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이다.

05 (가)와 (나)에는 모두 시각적인 풍경을 촉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시각의 촉각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비유로, (가)에 직유, 은유, 활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나타난다.

②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 표현하는 방법은 상징으로, (나)에 '길', '내', '고개', '숲' 등과 같은 상징적 표현이 나타난다.

③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활유로, (가)의 3연에 이러한 활유가 나타난다.

⑤ (가)에서는 '가장', '고운', '골라'와 같은 단어와 '-골라 -ㅂ니다', '-만 -(어/아)다닙니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나)에서는 '-(어)서 -(으)로', '-가(이) -고'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06 (나)에서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는 시어는 '숲'과 '마을'이며, '내'와 '고개'는 고난,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07 (가)는 비가 내린 후 봄날 아침의 풍경을 다양한 비유와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여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노래하고 있다.

08 ㉠은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고운 노래'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날아다닌다고 표현한 활유가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문장은 살아 있지 않은 대상인 '구름'이 빠르게 달려간다고 표현한 ③이다.

| 오답 풀이 | ① 예지가 빠르게 달리는 모습(원관념)을 바람(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가 나타난다.

②, ④ 비유, 상징 등의 문학적 표현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사람이 아닌 대상인 '나무들'이 사람처럼 인사를 건네고 있다고 표현한 의인이 나타난다.

09 (나)의 말하는 이는 '내', '고개'라는 시련을 넘어서 '숲'과 '마을'이라는 희망을 향해 꾸준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부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 사람은 말하는 이의 의지를 보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10 (가) 텔레비전의 경우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나) 방송국 누리집은 상호 작용적 매체이므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는 모두 고궁 야간 개장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개인적 목적의 소통은 아니다.

②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상호 작용적 매체인 (나)만 해당한다.

④ 상호 작용적 매체인 (나)는 (가)에 비해 언어 표현이 비교적 자유롭다. 텔레비전인 (가)에서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욱 강조되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⑤ (가)와 (나) 모두 분량에 제한이 있거나 내용을 짧고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 상호 작용적 매체에 글을 쓸 때는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개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파급력이 적은 적은 소통 공간이라고 해서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12 (다)에는 정보의 수용자가 댓글을 통해 춤을 배울 수 있는 학원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가 춤을 배운 학원 정보를 공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나) 우주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4 〈보기〉의 댓글은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 누리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학교 누리집에서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기〉의 댓글 내용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④ 〈보기〉는 학교 누리집의 공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높임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가)는 쓰담 달리기 행사를 안내하는 공적인 목적을 지닌 글인데, 〈보기〉는 이러한 소통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15 생각,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수용자끼리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댓글로 소통하려고 한 ④가 가장 적절하다.

2 안 보이던 것도 보이는 지혜

01 글 속에 숨은 생각 찾기

제재

본책 52~55쪽

1 ② 2 ⑤ 3 ⑤ 4 ④ 5 ⑤

1 '학생 1'은 방을 정리하지 않아서 방을 치우느라 공부를 하지 못한 사례이다. 반면 '학생 2'는 방을 잘 정리해서 알찬 하루를 보낸 사례이다. 글쓴이는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하루를 비교함으로써, 개인적인 공간인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독자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2 오늘날의 거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휴대 전화를 하느라 소통이 부재하여 적막감이 흐르는 공간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거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바꿀 때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옛날의 대청마루처럼 '사람들과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바람직하다고 여길 것이다.

3 (사)에서 통행량이 늘어나면 길을 넓히게 되고, 이때 길은 도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행량이 늘어나면 길이 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가 다시 자연스러운 길이 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③ 길은 지형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며, 오솔길, 들길, 골목길 등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② 도로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평평하고 곧게 다듬어져 있으며,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④ 글쓴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도로에 대해서는 일등을 하려고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4 제시된 사진은 동네 사람들이 정답게 소통하고, 아이들이 모여 즐겁게 놀고 있는 '옛날 골목길'의 모습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소통하는 공간인 '옛날 골목길'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동네에 이와 같은 소통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5 이 글에서 '옛날 골목길'은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자 삶의 공간이다. (차)에서 '옛날 골목길'과 같은 삶의 공간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삶의 여유, 이웃을 대하는 배려, 공동체 의식이 생길 수 있으며,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책 56~59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5 ③ 06 ④ 07 ⑤
08 ② 0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 휴대 전화 ⓑ 책장, 책 14 ⑤ 15 ④

01 이 글은 방을 잘 정리해야 하며 거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다. 개인적 공간인 방과 공유하는 공간인 거실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 공간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개인적인 공간, 방'과 '공유하는 공간, 거실'로 공간별로 소제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③ 집을 떠났던 경험을 떠오르게 하여 집에 대한 생각을 환기하고 있다.

④ 수학여행, 체험 활동 등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것, 학생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 등에서 예상 독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⑤ 두 학생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02 이 글을 읽은 독자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지저분한 방에서 생활하는 '학생 1'에게 방을 정리하면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할 수 있다.

03 옛날의 대청마루(㉠)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인 반면, 오늘날의 거실(㉡)은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 전화를 하는 등 소통이 단절된 공간이다. 글쓴이는 ㉠은 긍정적인 공간으로, ㉡은 부정적인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 ㉠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을 전달하고 있다.

04 길은 지형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져 울퉁불퉁하거나 구불구불한 반면, 도로는 인위적으로 만들기에 평평하고 곧게 다듬어져 있다. 즉 이 글에 따르면 지형과 어우러지지 않는 것은 도로뿐이므로, ④의 질문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

05 ㉠에서는 의문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답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독자 스스로 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06 글쓴이는 동네에 '옛날 골목길'과 같은 소통의 공간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서로 마음을 나눌 것이라 하였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07 글쓴이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소통의 공간이 생길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지, 독서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우리 삶에서 길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며 길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③, ④ (라)에서 글쓴이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 서로 마음을 나눌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며 소통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08 추론하며 읽으면 글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글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된다. 또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또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②의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09 (다)에서 샛길은 설계한 사람의 의도와 달리 좀 더 짧은 거리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 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샛길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며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10 ㉡은 사람이 공간을 가꾸는 것에 따라, 그 공간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개인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11 (라)에서 '~에 비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길과 도로를 대조하며 설명한 것으로 보아,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로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인위적'이 들어가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물질적: 물질과 관련된 것.
② 사회적: 사회에 관계되거나 사회성을 지닌 것.
④ 체계적: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것.
⑤ 합리적: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

12 이 글의 글쓴이는 공간을 가꾸고 사람들과 소통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골목길에 차량이 들어오며 이웃 간의 소통이 사라진 현재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④의 자료는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13 글쓴이는 거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책', '책장', '식물'은 거실에 두고, '텔레비전', '휴대 전화'는 내려놓자고 하였다. 글쓴이는 전자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후자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14 〈보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 중 '소통'과 '공간'이라는 중요한 단어와 그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 글의 주제를 추론하고 있다.

15 글쓴이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옛날 골목길'과 같은 공간에 모여 소통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발전 학습

본책 60~61쪽

1 ③ **2** ① **3** ②

1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 불감증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안전 불감증이 퍼진 원인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는 모습, 무단 횡단을 하는 모습과 같은 실제 사진을 제시하여 우리 주변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② 출퇴근 시 전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인터뷰, 보건 교육 포럼 이사장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④ 서울시, 통계청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⑤ 표제인 '안전 불감증 '심각' 단계', 부제인 '일상 곳곳에 위험 요소 넘쳐 나고 있어'에서 글쓴이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이 글은 일상에 널리 퍼진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 불감증의 사례를 통해 이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의 내용은 안전 수칙을 잘 지킨 사례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은 서울시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의 내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고난도 UP 심화 문제

본책 62~65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② **06** ③
07 옛날 골목길과 같은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공동체 속에서 편안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08** ④
09 글쓴이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이나 휴대 전화를 보며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오늘날의 거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10** ①
11 ② **12** ④ **13** ② **14** ② **15**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자.

01 글을 추론하며 읽는다는 것은 배경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를 고려하여 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이다. 따라서 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ㄱ. 예상 독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거실의 기능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ㄴ. 방을 잘 정리하지 않은 '학생 1'과 방을 잘 정리한 '학생 2'의 사례를 대조하여 공간을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ㄹ. '이제 텔레비전을 치우고 휴대 전화를 내려놓아 보자. 거실 한쪽에 책장을 두고 책을 꽂아 보자.' 등에서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ㄷ. 이 글은 공간의 기능과 의미를 서술한 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구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3 ㉡은 문을 닫으면 개인적인 공간이 되는 방의 특징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을 뿐, 다른 공간과 연결하는 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글쓴이는 동네에 소통의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최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05 글쓴이는 지형과 어우러지며 만들어진 길(㉠)은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위적으로 확장하여 만들어진 도로(㉡)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 길(㉠)은 사람이나 차가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도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공간이다.

06 글쓴이는 도로가 있어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도로를 보고 일등을 위해 경쟁하듯 달리는 사람을 떠올리며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은 도로를 소통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관점과 다르다.

07 글쓴이는 사람들이 '옛날 골목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에 모여 서로 마음을 나누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옛날 골목길'의 기능을 고려하여 글쓴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바르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8 이 글은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소통의 방법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09 글쓴이는 가족들끼리 아무런 대화 없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휴대 전화를 하느라 소통이 부재한 오늘날의 거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평가 기준	확인
오늘날 거실의 모습을 알맞게 썼다.	
글쓴이가 오늘날 거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10 글쓴이는 오늘날 거실을 옛날 대청마루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거실도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대청마루가 없는 집이 어떻게 소통했을지에 대한 질문은 옛날의 소통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날 거실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11 (라)에서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양한 취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2 (가)에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를 경계하지 않는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3 이 글을 추론하며 읽을 때는 일상에서 경험했던 안전 불감증의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광고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며, 이를 본 경험이 배경지식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14 (나)에서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 개인형 이동 장치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소제목은 '전철에서 반복되는 위험'이므로 전철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다룰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③ (나)는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위법 사항을 적발한 건수, 전국에서 발생한 무단 횡단 사고 등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다)는 안전 교육 전문가인 '보건 교육 포럼 이사장'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다)에서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글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각 자료인 도표로 나타내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5 이 글은 전철과 도로에서의 안전 불감증 사례를 통해 일상에 퍼진 안전 의식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며, 안전 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을 바르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2 실마리를 따라가며 듣기

활동 학습 본책 68~73쪽

1 ③ 2 ⑤ 3 ② 4 ② 5 ⑤ 6 ④ 7 ②
8 ④ 9 ④ 10 ④ 11 ② 12 ②

1 (가)의 말하는 이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라는 말을 통해 손님에게 옷이 잘 맞는지 물어보고 있다. 발화의 내용이 "어떠세요?"로 달라지더라도 이와 같은 담화 목적은 달라지지 않는다.

2 (가)와 (나)의 의미 차이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각각 옷 가게와 병원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차이는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의미 차이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② (가)는 옷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옷이 잘 맞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며, (나)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담화의 의도나 목적이 서로 다르다.

③ (가)와 (나)의 발화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로 동일하지만, 상황 맥락에 따라 발화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사례를 보여 준다.

④ (가)와 (나)는 상황 맥락에 따라 발화의 의미가 달라지는 사례로, 사회적 배경의 차이나 이로 인한 발화의 의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제시된 담화에서 영재는 평소에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미주의 성격과 과자를 쳐다보며 말을 하는 미주의 시선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영재는 미주의 평소 성격과 시선을 근거로 미주가 한 말의 의미를 추론한 것이다.

4 상대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며 들으면 상대가 그 말을 한 이유를 알게 되어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이 강연은 희망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연으로서, 옛 그림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옛 그림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6 강연을 들을 때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거나, 강연자가 강조하는 대목에 집중하며 들어야 한다. 강연 중 강연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것은 강연에 대한 집중력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이 강연은 오만 원권에 그려져 흔히 접할 수 있는 「포도」 그림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소재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청소년인 희망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오만 원권에 그려진 「포도」 그림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④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은 '신사임당'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등에서와 같이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배경지식을 환기하고 몰입을 돕고 있다.

⑤ 그림을 가리키거나 웃음을 짓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8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은 중학생인 청중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다. 강연자는 이러한 일들을 모두 잊고 그림 한 장으로 오백 년도 더 지난 옛날로 여행을 할 것이라고 하며, 청중들이 강연의 내용에 집중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9 (바)를 통해 신사임당이 곧은 가지와 곡선 모양의 덩굴손을 생생하게 표현하면서도, 한 번 붓이 지나간 곳에는 덧칠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모든 열매의 농도를 각기 다르게 표현했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포도」 그림은 원래 여러 색을 사용하지 않고 먹으로만 그린 작품이라고 하였다.

③ (마)에서 포도송이가 맺힌 가지들은 훨씬 진한 먹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였다.

⑤ (바)에서 곧게 내리그은 가지와 용수철 모양의 덩굴손이 조화로운 곡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였다.

10 이 강연이 옛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사람들이 옛 그림을 지루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관찰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추론할 수 있는 발화는 "옛 그림이 지루하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죠?"이다.

12 강연자는 「포도」 그림을 그린 신사임당의 관찰력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청중들도 이를 본받아 옛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책 74~77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③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① 12 상황 맥락 13 ②
14 ③ 15 ① 16 ③ 17 ④ 18 ④ 19 ①

01 같은 말이라도 담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담화에 나타난 정보뿐만 아니라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숨겨진 의도와 관점을 추론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담화란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문장 단위로 나타난 발화가 모인 것으로, 담화 참여자,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으로 구성된다.

③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맥락으로, 같은 말이라도 담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④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나 연설도 담화 참여자,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담화에 해당한다.

02 (가)의 화자는 점원, 청자는 손님이다. 점원은 담화의 상황 맥락에 적절한 발화를 하고 있으며, 손님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

03 (가)의 발화는 옷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현재 입고 있는 옷이 잘 맞는지 묻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④는 옷과 관련된 대답이 아닌 몸 상태와 관련된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민호는 약속 시간에 늦은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예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답하고 있다. 하지만 예나의 실제 발화는 약속 시간에 늦은 민호를 나무라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호에게는 상대의 질문에 담긴 숨겨진 의도를 생각해 보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

05 소풍 가기 전날이라는 상황 맥락과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제시된 발화는 비가 와서 소풍을 가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06 등굣길에 만난 친구에게 오늘 학교 끝나면 뭐 하냐고 물어보는 발화에서 배고프다는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빵집을 지나치며 동생에게 빵을 사 가자고 하는 발화에는 배고프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② 함께 축구를 한 친구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발화에는 배고프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④ 학급 회의가 길어져 지친 친구에게 간식이라도 먹자고 하는 발화는 회의로 인해 배가 고플 친구를 걱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동생에게 과일을 가져다주려고 하는 발화는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배가 고플 동생을 걱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07 해수욕장에서 "양심을 지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상황 등에서 쓰일 수 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에게 〈보기〉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과 ㉡은 담화 참여자나 상황 맥락에 따라 발화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점심시간이어서 진료를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은 회사원이 동료에게 점심시간이므로 업무를 중단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9 열려 있는 창문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선을 고려했을 때, ㉠은 창문을 닫아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10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행인 1의 발화는 가까운 경찰서의 위치를 물어보는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행인 2는 이를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행인 1에게 경찰서의 위치를 알려 주거나, 또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 〈보기〉의 "괜찮아?"는 각각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의미,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보는 의미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는 같은 말이라도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동일하다.

③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거의 유사하므로, 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다.

④ 발화는 "괜찮아?"로 동일하지만 전달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⑤ 담화 참여자 간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12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맥락은 상황 맥락이다. 담화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13 슬기의 몸동작과 앉은 자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슬기의 말은 창문을 열어 달라는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슬기가 자신의 상황에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승우는 가장 친한 친구인 영재를 웃으면서 쳐다보며 "여기 자리 있어."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을 것을 제안하는 의미로 추론할 수 있다.

③ 영재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슬기의 몸동작과 창문을 열 수 없는 슬기 자리의 특성을 바탕으로 발화의 의미를 추론하고 있다.

④ (가)의 말하는 이는 승우, (나)의 말하는 이는 슬기로 다르지만, 듣는 이는 영재로 동일하다.

⑤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버스 안으로 동일하지만, (가)는 자신의 옆에 앉으라는 제안의 목적으로, (나)는 창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의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14 영재는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승우의 표정과 시선, 제일 친한 친구 사이인 자신과 승우의 관계를 바탕으로 "여기 자리 있어."라는 발화의 의미를 추론하고 있다.

15 슬기의 몸동작과 상황 맥락을 고려하면, 영재는 슬기의 더위를 해소시켜 줄 행동을 하며 이에 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슬기의 상황에 공감하며 창문을 열자고 하는 대답인 ①이 가장 적절하다.

16 추론하며 들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이 좋아져, 대화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17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도」 그림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옛 그림을 감상할 때는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는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 ㄱ. 이 강연은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옛 그림을 자세히 감상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ㄷ. 「포도」 그림이 오만 원권 지폐에 실려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림이 수록된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 (다)에서 "지폐 속 그림과 달리, 화면 속 그림에는 검은 빛깔만 보이죠?"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실제 「포도」 그림은 검은 빛깔로만 보이나, 지폐 속 「포도」 그림은 여러 빛깔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강연자는 옛 그림이 쉽고 재미있다는 것과 옛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반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나라 지폐에 있는 위인을 조사하는 것은 옛 그림 감상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발전 학습

본책 78쪽

1 ② **2** ⑤

1 지각한 친구에게 이유를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왜 늦었니?", "무슨 일 있니?"와 같은 발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때?"라는 말로는 지각한 이유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새로 쓴 연극 대본에 대한 감상을 동료에게 "어때?"라는 말로 물어볼 수 있다.

③ 새롭게 꾸민 거실이 어떤 느낌인지 가족들에게 "어때?"나 "어떠세요?"라는 말로 물어볼 수 있다.

④ 음식이 맛있는지 손님에게 "어떠세요?"라는 말로 물어볼 수 있다.

⑤ 자신의 연주에 대한 의견을 선생님께 "어떠세요?"라는 말로 물어볼 수 있다.

2 담화를 추론하며 들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뿐 아니라 목소리의 크기, 억양, 말의 빠르기와 같은 준언어적 표현과, 동작, 표정, 시선 등의 비언어적 표현, 상황 맥락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고난도 UP 심화 문제

본책 79~81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⑤ **05** ③ **06** ② **07** 예서는 매점에서 간식을 함께 먹고 갈 것인지 물어보는 의도로 말하였다. **08** ③ **09** ⑤ **10** ⑤ **11** 신사임당의 관찰력을 본받아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관찰해야 한다. **12** ③ **13** ①

01 담화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담화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데, 화자와 청자의 관계, 사회·문화적 배경은 담화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담화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는 모두 중요하며 이들 간의 우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제시된 담화는 같은 말이라도 담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제시된 담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른 담화 목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듣는 사람이 담화 목적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각각 옷 가게, 병원이다. 같은 말이라도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② "어디가 불편하신가요?"라는 같은 말이라도, 각각의 상황이 다르므로 손님과 환자는 서로 다른 대답을 할 것이다.

③ 점원과 손님,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가 말의 의미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④ "어디가 불편하신가요?"라는 말의 표면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시된 그림과 같이 각각의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상황 맥락을 잘 살펴야 한다.

03 (가)는 승우가 영재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는 상황, (나)는 슬기가 영재에게 창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두 발화의 의미가 다른 것은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의 차이만으로 의미가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② (가)는 승우가 영재에게, (나)는 슬기가 영재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소풍 가는 버스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상황 맥락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담화의 의도나 목적 등이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04 (가)는 승우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 제일 친한 친구인 자신과 승우의 관계, 승우의 밝은 표정과 손동작을 바탕으로 발화 의도를 추론하고 있다. (나)는 손으로 부채질하는 슬기의 행동, 창문을 열 수 없는 자리의 특성을 바탕으로 발화 의도를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손동작,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발화의 의미를 추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05 영재와 승우의 관계, 승우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승우는 영재에게 옆에 같이 앉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슬기의 손동작과 슬기가 앉은 자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슬기는 창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06 담화의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맥락이므로, 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담화 참여자 모두 유의해야 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07 〈보기〉에서는 간식을 판매하는 매점을 바라보는 예서의 시선과 "배고프지 않니?"라는 발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서는 매점에서 간식을 먹을 것을 제안하는 의도로 말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평가 기준	확인
같이 매점에 가서 간식을 먹을지 물어보는 의도가 있음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8 제시된 장면에서는 넘어진 상태로 인상을 쓰고 있는 남학생과 이를 부축하는 남학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은 이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이 말한 "괜찮아요?"의 의미는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보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추론하며 듣기 위해서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한 맥락과 담화에 나타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추론을 통해 다음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화의 일부만을 듣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에서 강연자는 나머지 감상을 감상자의 몫으로 남겨 두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청중이 옛 그림을 감상할 때 강연자의 관점대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1 강연자는 「포도」 그림을 그린 신사임당의 관찰력을 언급하며, 옛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강연자는 포도를 자세히 관찰했던 신사임당처럼 청중들도 옛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신사임당의 관찰력을 본받아 그림을 자세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12 (다)에서 실제 「포도」 그림은 지폐에 실린 모습과는 달리 먹색 하나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포도」 그림의 특징으로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학생 1'은 강연이 쉽고 재미있었다는 감상을 표현하고 있지만, 강연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② 「포도」 그림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③ 강연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강연자의 의도와 목적을 추론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다른 강연을 들은 경험을, '학생 2'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활용하여 말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쉽고 재밌게 강연을 구성한 의도를, '학생 3'은 「포도」 그림만을 제시한 의도를 추론하고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82~85쪽

01 ② **02** ⑤ **03** ③ **04**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편안한 관계를 맺고, 소통의 공간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삶의 모습 **05** ③ **06** ③ **07** ④ **08** ② **09** ② **10** ④ **11** ⑤ **12** 자신도 간식이 있으므로, 고맙지만 거절하겠다는 의도이다. **13** ③ **14** ③ **15** ④ **16** ②

01 오늘날의 도로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모습이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것은 길이다.

02 글쓴이는 소통의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간을 가꾸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글을 썼다고 추론할 수 있다.

03 글쓴이는 도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도로'라고 표현하며 도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옛날 대청마루에서는 이웃들과 편히 소통했지만, 오늘날 거실에서는 모두 말 없이 텔레비전과 휴대 전화를 보고 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는 텔레비전을 치우고 휴대 전화를 내려놓고 거실을 꾸미면 가족들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④ (라)에서는 옛날 골목길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었으나, 오늘날 골목길에서는 차량 통행이 우선시되어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는 지금의 골목길과 다른, 옛날 골목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04 이 글의 글쓴이는 '대청마루', '옛날 골목길'과 같은 소통의 공간을 바람직한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소통을 할수록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한다면 ⓐ가 소통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내용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5 이 글은 안전 불감증을 다룬 기사문으로서, 추론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글에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글쓴이의 관점과 다른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6 제시된 자료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과 무단 횡단 금지 표지판을 담고 있는 사진이다. 이를 (나)에 추가하면 현실의 모습을 보여 주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다.

07 이 글은 전철과 도로에서의 안전 불감증 사례를 통해 일상에 퍼진 안전 의식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철과 도로에서의 사고 사례를 비교한 것은 아니므로 ④의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글의 신뢰성을 높여 전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③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⑤ 도로 위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위법 사례가 자주 발생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08 담화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전달하려는 내용, 맥락으로 구성되므로, ㉡에는 사회적 배경이 아닌 전달하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적 배경은 담화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09 (가)는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를 나무라는 상황, (나)는 버스를 기다리며 현재 시간을 물어보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발화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발화의 의미를 추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담화 참여자는 아영, 민재로 관계가 동일하므로 의미에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

③ (가)와 (나)에서 화자의 몸동작이나 시선이 따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④ 아영과 민재는 (가)와 (나)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자를 존중하지 않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가)와 (나)의 발화의 형태는 같으며, 상황 맥락만 달라지고 있다.

10 (가)의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아영은 약속 시간에 늦은 민재를 나무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민재는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담은 발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담화는 소풍 가는 버스 안의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영재가 미주의 평소 성격과 시선을 바탕으로 발화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고 있다. 영재의 생각에서 미주와 자신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추론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가방 속에 있는 과자를 가리키는 미주의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에게도 과자가 있어 사양하겠다는 발화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미주의 행동을 근거로 거절하겠다는 의도를 알맞게 추론하여 썼다.	

13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지금 뭐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무단 횡단에 대한 경고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은 "죄송합니다. 신호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가)를 통해, 이 강연이 방과 후 강당에서 희망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강연은 옛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포도」 그림만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비교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5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연임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재미있게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강연에서 오만 원권 지폐를 확대한 화면, 「포도」 그림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② 강연자는 강연을 하는 도중 여러 번 밝은 웃음을 보이고 있다.

③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청중들도 옛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⑤ "무엇이 떠오르나요?", "보이나요?" 등에서 질문을 던지며 청중이 스스로 생각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16 강연자는 「포도」 그림을 그린 신사임당의 관찰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에서 선조들의 옛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강연자는 자세히 관찰하며 옛 그림을 감상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채로운 우리말 어휘

01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활동 학습 본책 90~95쪽

1 ① 2 오늘/은/밤바람/이/차다, 오늘/은/밤/바람/이/차-/-다 3 ② 4 ⑤ 5 ② 6 ③ 7 ⑤ 8 ③ 9 ⑤ 10 ③ 11 ④ 12 ⑤

1 단어는 언제나 1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어 형태소 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③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도 단어로 인정한다.

④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이므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와는 거리가 멀다.

⑤ 실질적인 의미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는 말도 단어로 인정한다.

2 문장에서 띄어 쓴 단위로 나눈 후 조사를 분리하면 단어로 나눌 수 있다. 제시된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면 '오늘/은/밤바람/이/차다'로 나눌 수 있다. 단어로 나눈 문장에서 조사 외에도 의미가 있는 것을 더 나누면 형태소가 되므로 '밤바람'은 '밤'과 '바람'으로, '차다'는 '차-', '-다'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오늘/은/밤/바람/이/차-/-다'가 된다.

3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지(ㄱ)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ㄹ)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4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며, 접사는 일부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거나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등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주변 부분이다.

5 '높푸르다'는 '높-'과 '푸르다', '꽃나무'는 '꽃'과 '나무', '물병'은 '물'과 '병', '오가다'는 '오-'와 '가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으로,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있는 어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6 '뛰놀다'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다.'라는 의미로, '뛰(다)'와 '놀다'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인 어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뛰-'를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는 접사로 분석한 ③은 알맞지 않다.

7 제시된 단어는 각각 어근 '뜨다', '솟다', '받다' 앞에 접사 '치-'가 결합하여, 어근의 의미에 '위쪽으로'라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접사 '치-'는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지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다른 것이 없는'을 뜻하는 접사는 '맨-'으로, '맨발', '맨몸'과 같은 단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매우 짙고 선명하게'를 뜻하는 접사는 '새-'로, '새까맣다', '새빨갛다'와 같은 단어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를 뜻하는 접사는 '휘-'로, '휘젓다', '휘날리다'와 같은 단어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을 뜻하는 접사는 '헛-'으로, '헛걸음', '헛고생'과 같은 단어로 활용할 수 있다.

8 '마소'는 '말'과 '소'가, '화살'은 '활'과 '살'이, '소나무'는 '솔'과 '나무'가, '아드님'은 '아들'과 '님'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되었다. 이와 동일한 형태 변화가 일어난 단어는 '바느질'로, '바늘'과 '-질'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촛불'은 '초'와 '불'이, '나뭇잎'은 '나무'와 '잎'이 결합하면서 'ㅅ'이 첨가되었다.

④, ⑤ '기와집'은 '기와'와 '집'이, '책가방'은 '책'과 '가방'이 결합된 단어로, 단어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9 새말은 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10 '누리꾼'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외국어인 '네티즌(netizen)'을 파생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말로 다듬은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많관부'는 '많은 관심을 부탁하다'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것이다.

② '전자책'은 외국어 '이북(e-book)'을 합성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말로 다듬은 것이다.

④ '둘레길'은 어근 '둘레'와 어근 '길'을 합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⑤ '배낭족'은 어근 '배낭'과 접사 '-족'을 파생의 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11 '라볶이'는 '라면'과 '떡볶이'의 일부분을 따서 만든 새말로,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부합하지 않는다.

12 줄임말로 이루어진 새말은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새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책 96~99쪽

01 ④ 02 싹/이/돋-/-고/꽃/이/피-/-는/봄/이/오-/-았-/-다 03 ④ 04 ④ 05 ② 06 ① 07 ③
08 ③ 09 ② 10 ⑤ 11 ④ 12 ① 13 ⑤ 14 ③
15 ㉠: 우리, 하늘 ㉡: 손가락 ㉢: 짓누르다 16 ④
17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과 ㉡은 모두 'ㄹ'이 탈락하였다.
18 ③ 19 ⑤ 20 ⑤ 21 ④ 22 ② 23 ⑤ 24 ②

01 (나)에서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하였다.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은 '산딸기', '달다'와 같은 단어를 말한다.

02 제시된 문장을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나누면 '싹 / 이 / 돋- / -고 / 꽃 / 이 / 피- / -는 / 봄 / 이 / 오- / -았- / -다'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싹'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싹'이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았-'은 과거형임을 뜻하는 별개의 형태소이므로, '왔다'는 '오-'와 '-았-'과 '-다'로 나뉜다.

03 〈보기〉의 문장에서 '아침', '해', '살', '눈', '부시-'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 오답 풀이 | ①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아침', '해', '살', '눈'이다.

② 단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아침', '해', '살', '눈'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에', '이'이다.

③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에', '이', -다'이다.

⑤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에', '이', '부시-', '-다'이다.

04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작-/-은/비/방울/이/창/문/을/두드리-/-ㄴ-/-다'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는 '작-', '-은', '이', '을', '두드리-', '-ㄴ-', '-다'이며,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는 '작-', '비', '방울', '창', '문', '두드리-'이다. 따라서 홀로 쓰일 수 없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는 '작-', '두드리-'이다.

05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체육/-관/에서/농구/를/하-/-다'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관', '에서', '를', '하-', '-다'로 5개이다.

| 오답 풀이 | ①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체육', '농구'로 2개이다.

③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는 '체육', '농구', '하-'로 3개이다.

④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관', '에서', '를', '-다'로 4개이다.

⑤ 단어는 '체육관/에서/농구/를/하다'로 5개이다.

06 '새파랗다'의 '새-'는 접사로, 어근 '파랗다'와 결합하여 '매우 짙고 선명하게'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접사 '새-'는 어근 '파랗다' 앞에 붙어 의미를 강조할 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어근의 품사를 바꾸고 있지도 않다.

07 '짓밟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인 어근 '밟다' 앞에, '마구', '함부로', '몹시'라는 의미를 더하는 접사 '짓-'이 결합한 단어이다. 따라서 '짓밟다'는 어근 뒤에 접사가 붙은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울보'는 어근 '울(다)'에 접사 '-보'가 결합한 단어이다.

② '지우개'는 어근 '지우(다)'에 접사 '-개'가 결합한 단어이다.

④ '입히다'는 어근 '입(다)'에 접사 '-히-'가 결합한 단어이다.

⑤ '장난꾸러기'는 어근 '장난'에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단어이다.

08 '물병'은 '물'과 '병'이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맨발'은 접사 '맨-'과 어근 '발'이 결합한 파생어로, 이 중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어근은 '발'이다.

② '깊이'는 어근 '깊(다)'과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로, 이때 접사 '-이'는 어근에 붙어서 품사가 명사로 바뀌고 있다.

④ '군침'은 접사 '군-'과 어근 '침'이 결합한 파생어로, 이때 접사 '군-'은 어근 앞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⑤ '눈사람'에서 '눈'과 '사람'은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인 어근에 해당한다.

09 '논밭'은 '논'과 '밭', '높푸르다'는 '높(다)'과 '푸르다', '오가다'는 '오(다)'와 '가다'가 모두 어근으로,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이와 짜임이 동일한 단어는 어근 '낮'과 어근 '잠'이 결합한 '낮잠'이다.

| 오답 풀이 | ① '물감'은 '물'과 '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③ '일꾼'은 어근 '일'과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날고기'는 접사 '날-'과 어근 '고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무지개'는 '무지'와 '개'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10 '마시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며, '뛰놀다'는 어근 '뛰(다)'와 어근 '놀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따라서 두 단어의 짜임은 서로 다르다.

| 오답 풀이 | ① '나무꾼'은 어근 '나무'와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얼음물'은 어근 '얼음'과 어근 '물'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모두 복합어이다.

② '바람'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어근, 즉 실질 형태소가

하나뿐인 단일어이다.
③ '콩나물'은 어근 '콩'과 어근 '나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망치질'은 어근 '망치'와 접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11 ㉠ '햇과일'은 접사 '햇-'과 어근 '과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며, ㉡ '줄무늬'는 어근 '줄'과 어근 '무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줄무늬'는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접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③ ㉠은 어근이 한 개, ㉡은 어근이 두 개이다.
② ㉠, ㉡은 어근이 하나뿐인 단일어가 아닌, 어근과 접사 또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복합어에 해당한다.
⑤ ㉠은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 '햇-'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 '과일'이 결합한 단어이고, ㉡은 실질 형태소 '줄'과 '무늬'가 결합한 단어이다.

12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로, 접사 '헛-'과 어근 '수고'가 결합한 '헛수고', 접사 '드-'와 어근 '넓다'가 결합한 '드넓다'가 이에 해당된다.
| 오답 풀이 | '눈앞'은 어근 '눈'과 어근 '앞'이, '물만두'는 어근 '물'과 어근 '만두'가, '별빛'은 어근 '별'과 어근 '빛'이 결합한 합성어에 해당한다.

13 '되찾다'는 '다시 찾거나 도로 찾다.'라는 의미로, '도로'의 뜻를 더하는 접사 '되-'와 어근 '찾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하지만 '뛰놀다'는 어근 '뛰(다)'와 어근 '놀다'가, '여닫다'는 어근 '열(다)'과 어근 '닫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단어의 짜임이 서로 다르다.
| 오답 풀이 | ① '가방'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며, '다리', '의자'도 단일어로 만들어진 방법이 동일하다.
② '국물'은 어근 '국'과 '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논밭'은 어근 '논'과 '밭'이, '봄비'는 어근 '봄'과 '비'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만들어진 방법이 동일하다.
③ '방문'은 어근 '방'과 '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김밥'은 어근 '김'과 '밥'이, '손수건'은 어근 '손'과 '수건'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만들어진 방법이 동일하다.
④ '멋쟁이'는 어근 '멋'과 접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덮개'는 어근 '덮(다)'과 접사 '-개'가, '부채질'은 어근 '부채'와 접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만들어진 방법이 동일하다.

14 〈보기〉는 어근과 접사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방법인 파생법에 대한 설명이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파생어에 대한 설명인 반면, '날뛰다'는 어근 '날(다)'과 '뛰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보기〉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15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뿐인 단어로, '우리', '하늘'이 이에 해당한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눈물(눈+물)', '손가락(손+가락)'이 이에 해당한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로 '짓누르다(짓-+누르다)'가 이에 해당한다.

16 '촛불'은 어근 '초'와 어근 '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ㅅ'이 첨가되었다.

17 ㉠ '따님'은 어근 '딸'과 접사 '-님'이, ㉡ '바느질'은 어근 '바늘'과 접사 '-질'이 결합하면서 모두 'ㄹ'이 탈락하고 있다.

18 '들판'과 '들길'에서의 '들'은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을 뜻하는 명사이므로, '들판'과 '들길'은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들개', '들짐승', '들국화'의 '들-'은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따라서 '들개'는 접사 '들-'과 어근 '개'가, '들짐승'은 접사 '들-'과 어근 '짐승'이, '들국화'는 접사 '들-'과 어근 '국화'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9 이 글에 따르면 새말을 무분별하게 만들고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말을 지나치게 많이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20 '감튀', '아점'은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의 방법이 아닌,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에 해당한다.

21 '혼밥(혼자 밥을 먹음.)', '맛점(맛있는 점심)', '취존(취향 존중)',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모두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먹부심(먹다+자부심)'은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하여 만들어졌으므로 나머지와 만들어진 방법이 다르다.

22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 '리플(reply)'을 우리말로 다듬은 새말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말에 해당한다.
③, ④, ⑤ '스마트폰(smart phone)', '노트북(notebook)', '네티즌(netizen)'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가져온 새말이다.

23 새말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새말을 적절히 만들고 사용하면 우리말 어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은 적절하지 않다.

24 '이모티콘'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고, '그림말'은 우리말이므로, 우리말과 외국어를 섞어 만든 새말이 아닌,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다듬은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그림말'은 어근 '그림'과 어근 '말'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부합한다.
③, ④, ⑤ '그림말'은 불필요하게 쓰인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은 말이므로,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본래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발전 학습

본책 100~101쪽

1 ⑤ 2 ② 3 ④ 4 ③

1 이 글에 따르면 새말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국어학자들의 판단이 아닌, 언어 사용자들에게 달려 있다. 언어 사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새말은 새말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2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고 해서 그 단어가 반드시 언어 사용자들의 인정을 받아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새말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은 새말을 무분별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 이미 새말로 인정받아 사용되던 단어도 언어 사용자들이 그 말을 선호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새말로서의 생명력을 잃고 유행어로 남는다.

4 '붕세권'은 '붕어빵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지역.'을 재미있게 표현한 새말에 해당한다. '붕세권'은 공식적인 말하기, 쓰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격식 있는 언어 표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③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난도 UP 심화 문제

본책 102~105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엄마', '나', '안-'은 모두 실질 형태소이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06 ⑤ 07 ④ 08 ③ 09 ④ 10 ④ 11 ④ 12 ②
13 ④ 14 ④ 15 '오운완'은 '오늘 운동 완료'를 줄여 만든 새말이다. 이러한 말은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16 ⑤ 17 언어 사용자들이 일상에서 새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 매체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말 단어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 18 ⑤ 19 ③

01 제시된 문장을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나누면 '어제/동생/과/함께/동화/책/을/읽-/-었-/-다'로 나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띄어쓰기 단위로 나눈 것이다.
② 단어 단위로 나눈 것이다.
③ '-었-'은 과거형임을 뜻하는 별개의 형태소이므로, '었다'는 '-었-', '-다'로 나뉜다.
⑤ '동생'과 '동화'는 더 나누면 각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더 쪼갤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이다.

02 홀로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과 함께 쓰이는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이다. 밑줄 친 말 중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은 '받-'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그'와 '어제'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③, ⑤ '에'와 '-음'은 홀로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과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03 '새까맣게'를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나누면 '새-', '까맣-', '-게'로 나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단어는 '햇볕 / 에 / 얼굴 / 이 / 새까맣게 / 타다'로 총 6개이다.
② '얼굴'과 '타다'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인 단어에 해당한다.
③ '햇볕'을 형태소로 나누면 '해', '볕'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에 해당한다.
⑤ '에'와 '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므로 각각 단어로 인정하나, '-게'와 '-다'는 단어가 아니고 형태소이다.

04 ㉠, ㉡, ㉢은 모두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이므로,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② ㉠, ㉢은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나, ㉡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③ ㉡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나, ㉠, ㉢은 홀로 쓰일 수 없어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④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은 ㉡이 아닌, ㉠에 해당한다.

05 '엄마', '나', '안-'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제외한 형태소 '는', '를', '-았-', '-다'는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평가 기준	확인
실질 형태소임을 쓰고 특징을 알맞게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6 '코흘리개'는 늘 콧물을 흘리는 아이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로, 어근 '코'와 어근 '흘리(다)'와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07 '드넓다'는 접사 '드-'와 어근 '넓다'가 결합한 단어로, 이때 접사 '드-'는 '심하게' 또는 '높이'의 뜻을 더하고 있다. '먹이'는 어근 '먹(다)'과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로, 이때 접사 '-이'는 품사를 명사로 바꾸고 있다. 따라서 '드넓다'는 ㉠에, '먹이'는 ㉡에 해당하는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웃음'은 어근 '웃(다)'과 접사 '-음'이 결합한 단어로, 이때 접사 '-음'은 품사를 명사로 바꾸고 있다. 따라서 '웃음'과 '먹이'는 모두 ㉡에 해당하는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② '선생님'은 어근 '선생'에 접사 '-님'이 결합한 단어로, 이때 접사 '-님'은 높임의 뜻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은 ㉠에, '먹이'는 ㉡에 해당하는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③ '웃음'은 ㉡에, '드넓다'는 ㉠에 해당하는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⑤ '드넓다'와 '선생님'은 모두 ㉠에 해당하는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08 '새집'은 '새가 깃들이는 집.'이라는 의미로, '새'와 '집' 모두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새가슴'은 '새의 가슴처럼 가슴뼈가 불거진 사람의 가슴.'이라는 의미로, 이때의 '새'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이므로 어근에 해당한다.
② '앵무새'는 어근 '앵무'와 어근 '새'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모양새'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라는 의미로, 이때의 '-새'는 '모양', '상태',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따라서 '모양새'는 어근 '모양'과 접사 '-새'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새빨갛다'는 '매우 빨갛다.'라는 의미로, 이때의 '새-'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따라서 '새빨갛다'는 접사 '새-'와 어근 '빨갛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09 '잔디밭'은 어근 '잔디'와 어근 '밭'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뛰노는'의 기본형 '뛰놀다'는 어근 '뛰(다)'와 어근 '놀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꽃잎'은 어근 '꽃'과 어근 '잎'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날아가다'는 어근 '날(다)'과 어근 '가다'가 결합한 합성어로, 단어가 만들어질 때 '-아'가 두 어근을 연결해 주었다. '호랑나비'는 어근 '호랑'과 어근 '나비'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맨발'은 접사 '맨-'과 어근 '발'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장난꾸러기'는 어근 '장난'과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0 '헛기침'은 어근 '기침'에 '이유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 '헛-'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로, 단어가 파생되는 과정에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콧등'은 어근 '코'와 어근 '등'이, '등굣길'은 어근 '등교'와 어근 '길'이 결합하면서 'ㅅ'이 첨가되었다.
③, ⑤ '소나무'는 어근 '솔'과 어근 '나무'가, '아드님'은 어근 '아들'과 접사 '-님'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였다.

11 '맛점'은 '맛있는 점심'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말이다. '맛점'은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말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언어 표현을 위해 또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12 '취존'은 '취향 존중'에서, '심쿵'은 '심장이 쿵'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먹부심'은 '먹는 것에 대한 자부심'에서, '편세권'은 '편의점+역세권'에서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새말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13 〈보기〉는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지닌 '책사랑'이라는 새말을 만들고 있다. 이는 이미 있던 어근 '책'과 어근 '사랑'을 합성의 방법으로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14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의 '생'이 결합한 말을 보고, '열심히 사는 삶'이라는 의미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갓생'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도 맞지 않아 새말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 '오운완'은 '오늘 운동 완료'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말로, 오늘 해야 할 운동을 완료했음을 뜻하는 새말이다. 이는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새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보기〉의 상황과 같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오늘 해야 할 운동을 완료했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썼다.	
우리말 짜임에 맞지 않아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내용을 썼다.	

16 이 글에 따르면 새말은 언어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말로 정착하기도 하고, 생명력을 잃고 유행어로 취급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새말을 사회의 언어 사용 양상과 관련 지어 설명한 ⑤의 내용이 ㉠에 들어가기 적절하다.

17 (나)에서 새말이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일상에서 계속해서 사용된다면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새말을 우리말 단어로 여길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에 자주 노출되어 대중적으로 쓰일 경우, 우리말 단어로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언어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신문, 방송 등의 매체에서 자주 접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18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지 않고 그대로 쓴 새말일지라도, 언어 사용자들이 그 단어를 선호하고 의미가 쉽게 이해되어 의

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면 새말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19 '인터넷 강의'의 줄임말인 '인강'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강의'라는 본래의 의미를 잘 담고 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또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사회의 변화를 담고 있으므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언어 사용자들이 이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02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어휘

본책 108~115쪽

제재

1 ④ **2** ② **3** ③ **4** ③ **5** ⑤ **6** ② **7** ④
8 ⑤ **9** ⑤ **10** ② **11** 한자어, 외국어 **12** ⑤ **13** ③
14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쓰지 말아야 한다. **15** ④

1 (가)에서 세대, 전문 분야, 의사소통하는 매체에 따라 어휘가 쓰이는 모습이 다양하며, 이에 따라 '깨비'가 수집하고 분류한 어휘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2 (나)는 한자어의 뜻을 몰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나타나 있다. 이는 세대 간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한자어가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3 ㉠은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10대나 20대가 한자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어른들과 10대나 20대의 한자어 사용 양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4 '심심한 사과'는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으로, 연령대가 높은 어른들은 이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10대나 20대는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5 (라)에 의하면 청소년도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기성세대 언어를 쓰기도 하며, 어른들 역시 청소년과 대화할 때 청소년어를 쓰기도 한다.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하는 자세를 지니면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6 '깨비'가 쓴 초대장에는 청소년어가 다수 나타나 있다. 청소년어의 특징은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이나 단어를 줄여서 쓴 표현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말 '생일'과 영어 '파티'를 섞어 '생일 파티'를 만들고, 또 이를 줄여서 만든 '생파'가 이와 같은 특성을 잘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 ① 청소년어에 자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많다는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춘 표현이 많다는 것은 기성세대 언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④, ⑤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단어는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외국어를 사용한 단어가 많은 것은 아니다. 또 한자어는 청소년보다 기성세대에서 주로 사용한다.

7 '조촐하게'는 '고요하고 간편하게'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은 '저희 집에서 간편하게'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시끌벅적'은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며 시끄럽게 떠드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의 내용과 달라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8 다른 세대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또 다른 세대의 언어 사용자가 쓰는 단어와 꺼리는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어휘를 다른 세대에게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한자어는 곧 사라질 어휘가 아니라 우리말을 구성하는 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기성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한자어를 알아보고 그 뜻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9 전문어는 같은 분야의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간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도와주므로, 법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끼리 전문어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10 같은 집단의 구성원끼리 전문어를 함께 사용하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대화할 때 전문어를 사용하면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③ 전문어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말은 아니지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말이다.
④ 전문어에 한자어나 외국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한자어나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전문 분야의 특정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어를 보편적인 어휘로 풀어 설명해야 한다.

11 (바)에 의하면, 전문어에는 한자어나 외국어가 많아 해당 분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영어에서 가져온 의학 분야의 전문어 '디스펩시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의아해하는 '환자'의 모습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2 (자)에서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는 인터넷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으나, 지금은 비교적 여러 세대에서 인터넷 언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13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빠르고 쉽게 입력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터넷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온라인 대화방에서의 인터넷 언어 사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14 인터넷 언어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해 주는 어휘이다. 그러나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나 우리말을 파괴하는 새말도 많으므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이 글을 읽은 독자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과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고, 적절하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할 것을 다짐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든 단어 역시 우리말 어휘에 해당하며, 적절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새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책 116~119쪽

01 ④ **02** ④ **03** 매우 깊고 간절하다. 지루하고 재미없다. **04** ⑤ **05** ③ **06** ⑤ **07** ④ **08** ⑤ **09** 짧은 말로도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같은 집단 구성원끼리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10** ③ **11** ④ **12** ③ **13** ④ **14** ⑤ **15** ④

01 우리말 어휘는 세대에 따라, 전문 분야에 따라,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때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말인 전문어는 분야에 따른 어휘에 해당한다.

02 (나)에서 고객은 '심심한 사과'의 의미를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가 아닌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라고 생각하여 화를 내고 있다.

03 (나)에서 '심심한 사과'는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의미이나, 고객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심심하다'는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의미와 '지루하고 재미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보기〉와 같이 '금일', '유선'이라는 한자어를 모든 세대가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우,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할 수 있다.

05 대화하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속한 연령층에 맞는 어휘를 쓰기도 하므로, 어른들도 청소년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오답 풀이 | ① 세대별 어휘는 언어 사용자의 연령층에 따른 어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친밀도와는 관계가 없다.
②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청소년어가 생기기도 한다.
④ 연령층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기성세대 언어가 예의를 갖춘 표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통해 어휘가 지닌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06 (나)의 '깨비'의 초대장은 청소년어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데,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과 단어를 줄여서 쓴 표현이 많다. 또한 (다)의 '깨비 아버지'의 초대장은 기성세대 언어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한자어와 예의를 갖춘 표현이 많다. (나)는 '사촌 동생', (다)는 '형님'과 '누이'를 대상으로 쓴 편지이므로 독자를 고려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07 선생님은 한자어가 포함된 기성세대 언어로 말하였고, 한자어의 뜻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어휘를 사용해야 함을 조언할 수 있다.

08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분야나 직업이 생기면 이와 관련된 어휘가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전문어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말이다.
② 전문어는 특정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짧은 말로도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③ 같은 분야에 속한 사람들끼리 전문어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④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문 분야가 새로 생기면 전문어도 새로 생기므로 사회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나)에서 전문어는 짧은 말로도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같은 집단 구성원끼리 전문어를 함께 사용하면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어를 사용할 때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 머신 러닝, 자연어 처리는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서 생긴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특정 개념을 짧은 말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전문어는 외국어나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②, 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 지능이라는 개념과 이를 비롯한 여러 전문어가 새로 생긴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전문 분야가 생겨나면 전문어도 이에 따라 새롭게 생기게 된다.
④ 전문어는 같은 분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11 ⓐ는 '소화 불량'을 의미하는 의학 분야의 전문어이고, ⓑ는 '디스펩시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말이다. ⓐ와 ⓑ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는 의학 분야 구성원끼리 사용하는 어휘이며 ⓑ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2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상에서 쓰는 음성, 문자, 그림 문자 등을 의미한다. 현재는 비교적 여러 세대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일부 청소년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3 '인플루언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유명해진 사람.'을 뜻한다. 이는 매체 환경이 변화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말에 해당한다.

14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리지 않은 어휘를 등록하고, 뜻풀이를 수정할 수도 있다. 새로 만들어진 새말은 '우리말샘'에 등록하기에 적절한 단어이나, 한자어 '심심하다'는 새말이 아니므로 '우리말샘'에 직접 등록하기에 부적절하다.

15 인터넷 언어는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며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해 주는 어휘이지만,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상황에만 사용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인터넷 언어는 여러 세대에서 사용하므로 청소년과 대화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온라인 대화방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므로 인터넷 언어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③, ⑤ 발표 상황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상황은 각각 공식적인 말하기, 쓰기 상황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발전 학습

본책 120쪽

1 ③ 2 ①

1 전문어는 일상에서 쓰지 않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이므로 해당 전문 분야에 속해 있지 않은 어른들께 질문하여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2 〈보기〉는 '롱 테이크'라는 영화 분야의 전문어를 알기 쉽게 풀어 쓰고 있다. 이처럼 전문어를 자세히 풀어 쓸 경우, 설명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해당 분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고난도 UP 심화 문제

본책 121~123쪽

01 ④ 02 ④ 03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과 단어를 줄여서 쓴 표현이 많다. 04 ④ 05 ② 06 ① 07 간호사는 의사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08 ⑤ 09 ③ 10 ④

01 (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나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어와 기성세대, 즉 나이가 든 어른이 주로 사용하는 기성세대 언어처럼 어휘를 세대별로 구분할 수 있다.

02 (나)와 (다)는 세대별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 오해가 발생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자신의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대화할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ㄱ. 외국어나 새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와 새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ㅁ. 청소년어나 한자어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때와 장소에 맞게, 대화 상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3 '생파'는 '생일 파티'를 줄여 쓴 말로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이며, '생선'과 '생축'은 각각 '생일 선물'과 '생일 축하'를 줄여 쓴 표현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어는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이나 단어를 줄여 쓴 표현이 많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이 많다는 내용을 썼다.	
단어를 줄여 쓴 표현이 많다는 내용을 썼다.	

04 (나)에서 시대의 변화로 전문 분야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이에 따른 전문어도 새로 생긴다고 하였다.

05 인터넷 언어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해 주는 어휘이다. 인터넷상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거나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고, 문자를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터넷 언어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06 '금일(今日)'은 '지나가고 있는 이날.', 즉 '오늘'을 의미하는 단

어이므로, '서류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7 의사가 전문어를 사용하면 같은 의료 분야에 속해 있는 간호사는 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는 같은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전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간호사는 전문어를 이해한다는 내용을 썼다.	
환자는 전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썼다.	

08 〈보기〉는 음악 분야의 전문어를 해당 분야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어휘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9 '악플'은 '인터넷의 게시판 등에 올려진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평가를 하여 쓴 댓글.'로 우리말과 영어 '리플(reply)'이 합쳐진 말이다. 따라서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탬핑'은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 중에 에스프레소 추출기에 커피 가루를 채워 넣고 다지는 일.'을 뜻하는 커피 관련 분야의 전문어이다. 손님은 해당 분야에 속한 사람이 아니므로 바리스타가 손님에게 이야기할 때는 '원두 압착' 등과 같이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24~127쪽

01 ⑤ 02 ④ 03 저녁, 밥, 은, 언제, 먹-, -었-, 니 04 ②
05 ③ 06 ③ 07 ⑤ 08 ④ 09 ③ 10 ① 11 ③
12 ③ 13 ④ 14 ④ 15 ④ 16 ④ 17 ④ 18 ⑤

01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의미한다.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할 경우, 의미를 지닌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새로운 형태소라 말할 수 없다.

02 '우리는 유리컵을 깨끗이 닦았다.'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인 '우리, 유리컵, 깨끗이, 닦았다'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인 '는, 을'로 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단어는 '내, 가, 처음, 으로, 너, 를, 보았지'로 7개이다.
② 단어는 '그, 는, 교실, 에서, 안경, 을, 찾았다'로 7개이다.
③ 단어는 '엄마, 는, 시장, 에서, 수박, 을, 샀다'로 7개이다.
⑤ 단어는 '네, 가, 나, 에게, 소설책, 을, 빌렸었어'로 7개이다.

03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로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를 나눈 후 단어에서 의미를 지닌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야 한다.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저녁, 밥, 은, 언제, 먹-, -었-, -니'로 나눌 수 있다.

04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면 '봄, 비, 가, 꽃, 잎, 을, 적시-, -ㄴ-, -다'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는 '봄, 비, 꽃, 잎, 적시-'이며,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가, 을, -ㄴ-, -다'이다.

05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로 어근 뒤에 붙어 그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② 접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④ 형태소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이므로,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다.
⑤ 접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들 수 있다.

06 '되찾다'는 접사 '되-'와 어근 '찾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며, '비바람'은 어근 '비'와 어근 '바람'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흔들다'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믿음'은 어근 '믿(다)'과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07 '돌미역'은 '바위에 붙어 있는 미역.'이라는 의미로,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 '돌-'과 어근 '미역'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나머지 단어는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08 (나)에서 새말이 여러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단어가 될지, 그렇지 않은 단어가 될지는 언어 사용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였다.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일상에서 계속 사용된다면 새말은 자연스럽게 우리말 단어로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유행어처럼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새말은 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이다.
② 새말이 만들어지고 난 후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지 등과 같은 검증을 거쳐 일부 새말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기도 한다.
③ 줄임말로 만들어진 새말은 합성이나 파생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말 짜임에 맞지 않는다.
⑤ 새말이 대중 매체에 자주 노출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말 단어로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09 '개취'는 '개인의 취향'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말로,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단어가 아니다. '웃기다'의

'웃'과 '슬프다'의 '프다'를 결합한 '웃프다'와 같은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10 '텀블러'를 '통컵'으로 다듬은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기존에 있던 단어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바꾼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통컵'에서 '컵'은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온 말에 해당하므로, 우리말 단어로 구성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이 글은 세대, 분야, 매체에 따라 우리말 어휘를 분류하고,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설명문이다. (가)에서는 세대별 어휘를, (나)에서는 분야별 어휘를, (다)에서는 매체별 어휘를 설명하고 있다.

12 청소년어는 단어를 줄여서 쓴 표현이 많아 기성세대 언어에 비해 단어의 길이가 다소 짧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의 길이와 의미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단어를 줄여 쓴 표현이라고 해서 의미 또한 간단하다고 할 수는 없다.

13 [A]에서 의사는 전문어를 사용하여 간호사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 반면, [B]의 환자에게는 전문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사용하고 있다.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같은 분야의 사람들끼리 전문어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므로, 같은 분야에 속하지 않은 의사와 환자는 서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다.

14 '선의'는 '착한 마음. 또는 좋은 뜻.'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은 '상대를 배려하는 좋은 뜻의' 등으로 고쳐 쓸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고대하다'는 '몹시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몹시 기다리던'으로 고쳐 쓸 수 있다.

② '각고'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을 견디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무척 애쓰며'로 고쳐 쓸 수 있다.

③ '전심전력'은 '온 마음과 온 힘을 한곳에 모아 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로 고쳐 쓸 수 있다.

⑤ '펼치다'는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주의를 끌 만한 상태로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여 주다'로 고쳐 쓸 수 있다.

15 〈보기〉의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가족이 인터넷 언어로 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는 비교적 여러 세대가 인터넷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는 인터넷 언어가 사용되고 있을 뿐, 전문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 '헐', 'ㅠㅠ'와 같은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인터넷 언어가 사용되었다.

③ '그냥'을 줄여서 쓴 '걍'과 같은 줄임말이 사용되고 있을 뿐, 간단한 말을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보기〉의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세대가 다른 아빠와 엄마, 깨비, 깨비의 동생이 모두 인터넷 언어를 사용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

16 '캐리하다'는 '캐리(carry)'와 '하다'를 합친 말로,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은 주로 게임 등의 상황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웃는 얼굴을 표현한 것으로,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② 'ㅎㅇ'는 초성만 입력한 표현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을 빠르고 쉽게 입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③ '브이로그'는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기록한 콘텐츠'를 뜻하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⑤ 'ㅅㅏ'는 '아'라는 감탄사를 영문자와 섞어서 쓴 표현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을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17 인터넷 언어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며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말을 파괴하거나 예의에 어긋난 표현도 많으므로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쓰지 말아야 한다.

18 대화를 할 때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면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황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고 해서 금방 사라지는 어휘나 오래 사용될 어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나를 돌아보는 내 마음의 거울

01 문학으로 성장하는 우리

제재 본책 132~147쪽

1 ⑤ 2 ① 3 ③ 4 나자르 본주 부적을 구입한다. 불꽃을 보며 소원을 빈다. 5 ⑤ 6 ④ 7 ⑤ 8 ⑤
9 ③ 10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기 때문이다.
11 ④ 12 ④ 13 ④ 14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기 때문이다.
15 ④ 16 ③ 17 ② 18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 똑같아.
19 ③ 20 ⑤ 21 ③ 22 ⑤ 23 ④ 24 ③ 25 나자르 본주 부적을 바다에 던져 버린다. 26 ②

1 (가)에서 보리는 엄마가 수어로 "더 먹어."라고 하는 것에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리가 수어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 가기 전 한참을 뛰어 서낭당에 도착한 보리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고 있다. 이를 통해 보리에게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 서낭당에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③ 서낭당에서 두고 온 물건을 찾아가거나 친구를 만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서낭당에서 소원을 빈 보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 학교에 간다. 즉 학교 가는 길에 서낭당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보리는 서낭당에서 소원을 빌고 나서 이내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서 벗어나 혼자 있고 싶은 것은 아니다.

3 서낭당에 가서 소원을 비는 모습을 통해 보리에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꽃을 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은정의 말을 들은 보리는, 서낭당에서 그랬듯이 불꽃놀이에 가서도 소원을 빌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보리는 나자르 본주 부적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며 부적을 구입한다. 또 큰 불꽃이 터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은정의 말을 들은 후 불꽃이 퍼지는 하늘을 보며 소원을 빈다.

5 '나자르 본주'는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부적으로, 보리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구입하는 물건이다. 즉 가족에게 선물로 주려는 의도로 구입한 것은 아니다.

6 보리는 가족들을 찾던 중 불꽃이 터지는 것을 보며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불꽃놀이를 보지 못한 것이 속상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보리는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과 동시에 두렵고 무서웠을 것이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상점에 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 것이다.
⑤ 보리는 종합 안내소를 찾았으나,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이 방송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7 보리는 바다에 빠지는 사고 이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며 수어로 대화하는데, 이후 정우와의 대화를 통해 청각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된다. 따라서 보리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②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는 보리는 수어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거울을 보고 귀를 만져 보며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정은 "왜 소리를 잃고 싶어?"라고 하며, 그동안 보리가 빌던 소원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④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라는 말을 통해 가족 중에서 혼자만 소리가 들리는 보리가 느꼈던 소외감을 알 수 있다.

8 정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 선수가 되지만 혼자서라도 연습을 하겠다고 하며, 꿋꿋하고 의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 은정은 축구 실력이 뛰어나고 달리기가 빠른 정우가 주전이 아니라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겨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10 보리는 가족들과 달리 혼자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고 있다. 이는 보리와 은정의 대화에서 보리가 집에 있으면 자신만 다른 사람 같다고 하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11 보리는 지금도 소리를 잃고 싶냐는 은정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보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면서 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체감하고, 이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보리는 가족 모두가 같아지면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한다. 그러나 은정네 가족은 모두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진다.

13 정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친구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보리는 정우와의 대화를 통해 정우가 친구들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했을 것이다.

14 평소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던 정우는 소리가 듣고 싶다기보다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15 고모는 정우의 수술 날짜를 이야기하며,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즉 고모는 정우가 축구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우가 수술 후 운동을 못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16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던 보리는 결국 가족들 앞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보리의 말을 들은 아빠는 보리를 감싸 안아 준다. 따라서 엄마와 아빠가 보리를 혼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7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안 해도 괜찮냐며 반복해서 물어보다가,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못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 과정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 척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이는 축구를 좋아하는 정우가 수술로 인해 축구를 못 하게 될까 봐 걱정하여 한 행동으로, 축구에 대한 정우의 꿈을 지켜 주고 싶은 보리의 마음이 드러난다.

18 아빠가 한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 똑같아."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 준다. 보리는 아빠의 말을 듣고 가족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이다.

19 보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여러 경험을 하면서,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과 사랑은 소리가 들리는 것과 상관없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수어를 해야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못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들린다는 점을 고백해야 하므로 긴장감을 느꼈을 것이다.
② 보리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했던 이유는 가족들 중 자신만 소리가 들려서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는 쌓였던 소외감이 함께 터져 나왔을 것이다.
④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고백할 때 미안한 감정이 생겼을 것이다.
⑤ 보리는 가족들 사이에서 줄곧 소외감을 느꼈는데, 가족은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똑같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점을 깨달아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20 보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보리의 소원이 더 확고해지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은정 아빠가 보리네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함께 짬뽕과 짜장면을 먹는 장면에서 정겨운 이웃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② 정우의 경기를 함께 숨죽인 채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다.
③ 수술이 예정되었던 날에 축구 경기를 하는 정우의 모습을 통해 정우가 수술 대신 좋아하는 축구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우는 경기에서 다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정우네 팀 감독은 정우를 빼니까 공격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21 보리는 은정 아빠의 말을 통해 정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주전 자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22 블랙아웃은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시나리오 용어로서, 중요한 순간에 화면을 검게 처리하여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에서도 정우가 공을 찬 후 골이 들어갔는지,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보여 주지 않아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23 이 글에는 청각 장애인이 겪는 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만, 가족이나 이웃 간의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아빠는 정우와 보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똑같다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독자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②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축구를 연습하는 정우의 모습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③ 청각 장애인이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다.
⑤ 보리가 해안 도로를 걷는 장면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

24 정우는 준우승을 했을 때 엄청 울었지만, 교실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는 해맑게 웃는다. 정우가 해맑게 웃는 이유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정우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어서 기뻤을 것이다.

25 보리는 나자르 본주를 살 때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보리가 나자르 본주를 버리는 것은 보리에게 더 이상 소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어 했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26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를 통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소원이 필요 없게 된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책 148~153쪽

01 ① 02 ① 03 불꽃놀이 04 ④ 05 ⑤ 06 ②
07 화상 전화기 08 ③ 09 ④ 10 ①
11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의리가 있다. 12 ② 13 ① 14 ⑤
15 ⑤ 16 ③ 17 ② 18 ④ 19 ① 20 ⑤ 21 ⑤
22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01 이 글은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위한 시나리오로서 영상으로 촬영하므로 장면을 기본 단위로 한다. 막과 장을 기본 단위로 하는 것은 희곡에 해당한다.

02 (다)에서 보리는 외국인 상인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튀르키예의 부적인 나자르 본주를 구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가)에서 가족들은 불꽃놀이를 본 경험이 아니라 불꽃놀이를 보러 갈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③ (가)에서 보리는 수어로 소통하는 가족들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④ (나)에서 은정은 보리에게 불꽃놀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보리에게 함께 가자고 한 것은 아니다.
⑤ (나)와 (다)를 통해 보리에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가족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복선은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들의 대화와 은정의 말을 통해 보리가 불꽃놀이에 가서 소원을 빌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불꽃놀이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04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리와 달리 가족들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수어로 대화하고 있다. 보리는 가족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이 모습을 바라만 보는데, 이를 통해 보리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05 보리는 방송을 해도 가족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종합 안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보리가 방송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06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크게 울던 보리가 짜장면이라는 말에 울음을 그치는 장면은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보리의 특징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07 화상 전화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이다. 청각 장애가 있는 가족들은 일반 전화기로 통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보리가 경찰관에게 화상 전화기를 요청하고 있다.

08 왜 소리를 잃고 싶냐는 은정의 질문에 보리는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리가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어서 소리를 잃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에서 수어로 재미있게 대화하는 엄마, 아빠의 손을 뚫어지게 보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보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과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관계가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09 가족 중 혼자만 소리가 들리는 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족들 사이에 있을 때 소외감을 느껴,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게 된다. 이는 가족들이 겪는 차별을 알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다.

10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한 이후 정우와의 대화를 통해, 정우가 학교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

11 [A]에서 은정은 축구 실력이 뛰어난 정우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 선수가 된 것에 화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은정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의리가 있는 성격인 것을 알 수 있다.

12 정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 선수가 되었지만, 혼자서라도 연습을 하며 축구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정우는 보리에게 후보 선수가 된 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③ 정우를 통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노력하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은정은 보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리 스스로 거짓말을 밝혀 진실을 알게 되었다.
⑤ 가족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계를 인정하기보다 차별에 굴하지 않고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3 고모는 정우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 정우에게 수술 후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는 축구를 좋아하는 정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자신도 비밀을 가져야겠다는 내용도 고모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는 거리가 멀다.

14 보리는 자신이 가족들과 같아지면 더욱 잘 소통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소통하지 않는 은정 가족의 상황을 알게 되고 생각에 잠기게 된다.

| 오답 풀이 | ① 보리는 은정에게 아빠와 낚시하는 것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낚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내용은 보리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② 보리는 가족 모두가 같아지면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은정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 모두가 똑같다고 해서 소통을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③ 보리는 가족에게서 소외감을 느끼고 가족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혼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④ 보리는 소리가 들림에도 가족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소리가 들리지 않길 바라고 있으며, 가족들과의 소통을 바라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15 (다)에서 보리는 정우에게 수술을 하고 싶은지, 소리를 듣고 싶은지 거듭 물어보고 있다. 이는 (나)에서 정우가 수술을 하면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정우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이 글에서 엄마와 아빠가 정우의 수술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아빠는 정우가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는 똑같다고 말하며,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똑같이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17 엄마와 아빠는 보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도 수어 실력이 좋아진 것을 칭찬한다. 이를 통해 엄마와 아빠는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며 좋은 점을 생각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리가 들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도 나타난다. 그러나 (나)를 통해 엄마와 아빠가 수어를 쓰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8 보리는 엄마, 아빠의 말을 통해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노력한다면 더욱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보리는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보다는 소통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오답 풀이 | ① 보리는 그동안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하며 청각 장애가 있는 삶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다.
②, ③ 보리는 엄마, 아빠의 말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들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과, 노력하면 얼마든지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⑤ 엄마와 아빠가 시간이 흘러 슬픔을 극복한 것은 맞지만, 이후 보리의 행동을 봤을 때 보리가 이와 관련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은 정우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보리는 이와 관련하여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20 인물의 성장을 다룬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문학 작품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오답 풀이 | ① 글에 제시된 시각 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하며 읽는 태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는 태도이다.
②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은 주로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문학 작품은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서 현실의 문제점이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와 별개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④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1 은정 아빠는 정우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전 선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정우가 나중에라도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22 보리가 나자르 본주를 살 때는 청각 장애인인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가족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나자르 본주를 버릴 때는 소리가 들리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상관없다는 내용을 썼다.	

발전 학습

본책 154~157쪽

1 ④ **2** ⑤ **3** ① **4** ③ **5** ② **6**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1 평소의 수남은 가게 문을 닫은 이후 자신의 방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공상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오늘은 낮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갈등을 하면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
② 수남은 낮에 자전거를 가지고 달리면서 공포도 느꼈지만 상쾌한 해방감과 쾌감도 느꼈다고 하였다.
③ 앞부분 줄거리에 따르면, 신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남에게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치라고 외쳤다고 하였다.
⑤ 신사는 수남에게 승용차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이에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다.

2 주인 영감은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을 나무라지 않고 칭찬한다. 이는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수남은 주인 영감이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인 것을 깨닫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3 수남은 낮에 자신이 저지른 일을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 ㉡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부분이고, ㉢, ㉣, ㉤은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4 수남이 짐을 싼 것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이며, 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수남은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는 가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글은 순진한 소년인 수남의 시각에서 신사, 주인 영감 등 물질을 중시하는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수남이 도둑질을 하게 된 후 갈등을 겪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내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며 수남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

⑤ 수남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죄책감에 고민하고 있으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수남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다.

5 수남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따라서 수남이 잘못을 저질러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6 이 글에서 '누런 똥빛'은 부도덕성, 비양심성을 상징한다. 수남의 얼굴에서 누런 똥빛이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는 것은 수남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양심과 순수성을 회복했음을 의미한다.

고난도 업 심화 문제

본책 158~163쪽

01 ⑤ **02** ④ **03** 보리의 소원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04** ④ **05** ② **06** ④ **07** ⑤ **08** ④ **09** ③ **10** ④ **11** ① **12** ③ **13** ⑤ **14** ③ **15** ④ **16** ④ **17**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온 자신을 나무라지 않고 칭찬한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8** ④ **19** ① **20** ① **21** ③

01 이 글은 영화의 상영을 목적으로 쓴 대본인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는 장면을 단위로 구성되고,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시나리오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02 (다)에서 경찰관은 보리의 가족을 찾아 주기 위해 울고 있는 보리를 달래며 가족의 인상착의를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보리의 가족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보리는 학교에 가기 전 서낭당에 들러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있으므로, 간절한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은정은 불꽃놀이에 대해 들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리는 무표정으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둘의 표정이 상반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보리는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심한 듯이 나자르 본주를 구입하고 있으므로, 결연한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은정과 보리는 말이 아닌 글자를 통해 대화하고 있으므로, 관객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글자가 잘 보이도록 찍는 것이 적절하다.

03 (라)에서 은정과의 대화를 통해 보리의 소원을 알 수 있다.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어 하며, 그 이유는 집에 있을 때 혼자인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보리의 소원을 알맞게 썼다.	
소원을 갖게 된 이유로 소외감을 느껴서,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어서 등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4 보리는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바다에 빠지는 사고 이후 자신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며 수어로 대화하기 시작한다. 즉 수어는 청각 장애를 지닌 가족들이 소통하는 수단일 뿐, 수어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마)에서 보리는 사고 이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며 수어로 대화한다. 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는 자신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06 V. O.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의 목소리나 소리를 나타내는 시나리오 용어이다. 따라서 ㉠에서는 선생님이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야 한다.

07 보리는 가족을 잃어버려 경찰서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이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08 (다)에서 의사는 인공 와우 수술을 해도 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수술을 하면 자동차 경적이나 경보음 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겠지만, 가족과 말로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 것이다.

09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받고 소리를 듣게 되는 것보다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보

리가 정우를 위해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고모는 정우가 수술을 받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반면,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받으면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수술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② 아빠가 보리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아빠는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가족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보리가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을 전하자 정우는 축구를 못 하냐고 물어보고, 엄마는 보리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 이를 통해 정우는 축구를 못 하게 된다는 사실에, 엄마는 보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의사는 정우가 수술을 받으면 심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고모는 정우가 수술 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이를 정우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10 (가)에서 정우는 부당하게 후보 선수가 된 것에 굴하지 않고 혼자 연습을 하러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④는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평가이다.

11 (나)에서 은정은 보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을 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평가는 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② 가족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보리는 가족 모두가 똑같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소원을 갖게 된다.

③ 은정은 자신의 가족은 모두 들을 수 있지만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④ 보리는 가족 모두가 같아지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을 하였으나, 은정의 말을 듣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고 있다.

⑤ 은정은 집에서 엄마, 아빠와 대화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빠와 낚시를 가는 보리가 부럽다고 하였다.

12 보리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며 쌓였던 서운함과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미안함, 거짓말을 고백한 후의 안도감 등의 감정이 섞여 눈물을 터트리고 있다.

13 이 글의 마지막에서 보리는 나자르 본주를 버리는데, 이는 소원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 주는 듯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즉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보리가,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르 본주를 버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력을 통해 소원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은 마지막에 나타난 보리의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14 이 글은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사랑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는 (라)에서 "정우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 똑같아."라고 말하는 아빠의 대사를 통해 잘 드러난다.

15 (다)에서 주인 영감이 "네놈 오늘 운 텄다."라고 하는 것은 수남의 운이 좋았다는 뜻이며,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신사가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한 것이다.

16 (라)에서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인지, 도둑질할 때 왜 기쁨을 느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주인 영감은 이미 수남의 행동을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⑤ 수남은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기도 하고, 정당화하기도 한다.

② 수남은 자신이 도둑질을 하면서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17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칭찬한다. 이는 자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남은 이 일을 계기로 주인 영감이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 영감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수남의 부도덕한 행동을 주인 영감이 칭찬했다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18 수남은 형 수길이 도둑질을 하여 순경에게 붙잡혀 간 기억을 떠올리며, (라)에서는 자신도 수길처럼 도둑질을 하고 만 오늘의 일을 자책하고 있다. 따라서 수길이 도둑질을 할 때 수남이 함께한 것은 아니다.

19 (라)에서 수남은 아버지의 당부를 어기고 도둑질을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도둑질을 한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까 봐 염려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20 수남은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굳힌다. 이에 누런 똥빛이었던 얼굴이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나는데, 이는 수남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잃어버렸던 도덕성을 회복하였음을 의미한다.

21 이 글은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웃에 무관심한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수남은 갈등이 해소된 후 고향의 풍경을 떠올리며 얼굴빛이 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학적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④ 주인 영감은 물질적 가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도덕적인 인물로, 수남은 이러한 주인 영감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독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수남의 모습을 바람직하게 느낄 수 있다.

⑤ 주인 영감, 신사, 수길을 통해 물질적 가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도덕한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수남은 양심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다.

02 진솔하게 그린 나의 마음

본책 166~167쪽

제재

1 ⑤ 2 ③ 3 ① 4 철쭉나무

1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읽으면 글에 나타난 경험에 공감하여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글은 경험의 공유, 정서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정보의 전달은 주된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을 읽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다)를 통해 글쓴이는 그동안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전쟁이나 이산가족을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3 이 글에서 글쓴이는 주로 할아버지의 슬픔과 그리움에 공감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은 할아버지가 실향민이라는 사실만 전달하고 있으며, 글쓴이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②, ⑤ 할아버지의 행동을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이해하며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③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 직접 드러나고 있다.

④ 할아버지의 품이 따뜻해서 슬펐다고 하였다.

4 철쭉꽃이 피어나서 할아버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나무는 글쓴이와 할아버지가 함께 심은 '철쭉나무'이다.

활동 학습

본책 168~171쪽

1 ③ 2 ③ 3 ㄴ, ㄷ, ㅁ 4 ④ 5 주제, 독자 6 ⑤

1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의 글감을 고를 때는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지, 감동이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주제인지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논리적인 근거로 증명할 수 있는지는 주장하는 글의 글감을 고를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2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감동을 받았던 일이나 깨달음을 얻었던 일, 다양한 감정을 느꼈던 일, 후회가 되는 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추운 겨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글쓴이의 경험이나 정서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글의 글감으로 적절하지 않다.

3 글의 개요를 작성할 때는 글에 담을 내용을 배열하고 '처음–가운데–끝'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해야 한다. 또 전체 내용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은 추가한다.

| 오답 풀이 | ㄱ. 생성한 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ㄹ.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열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며,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순서로 수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개요 작성의 효과

개요를 작성하면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배열할 수 있음.

4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고쳐 쓸 때는 글의 주제, 글의 목적, 독자, 표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검하고 고쳐 써야 한다. 표현을 기준으로 점검할 때는 표현 방법이 중복되지 않게 사용했는지보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을 했는지,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맞춤법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5 '할아버지와 나의 추억'이라는 제목을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로 고치면 가족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의 주제가 더욱 잘 드러나고, '엄마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주어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다.

6 글을 다른 유형인 영상으로 바꾸어도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③ 글을 영상으로 바꾸기 위한 스토리보드에는 적절한 내레이션과 자막, 음향 효과와 배경 음악이 들어가야 한다.

②, ④ 스토리보드에서는 화면 구도를 어떻게 찍을지 결정하고, 적절한 편집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족집게 쏙 예상 문제

본책 172~175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③ 05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06 ②
07 ⑤ 08 ② 09 ④ 10 ③ 11 ⑤ 12 ⑤ 13 ①
14 ④ 15 ② 16 ③ 17 ⑤

01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경험도 글감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기쁨이나 슬픔을 느꼈던 일, 후회가 되는 일과 같이 자신의 정서나 느낀 점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이와 같은 글의 글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와 같은 글은 수필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다.
③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므로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성격 등이 잘 드러난다.
④ 수필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다.
⑤ 수필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므로 '나'는 글쓴이 자신이 된다.

02 (나)에서는 증조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홀로 남쪽에 데려다 놓고 다른 가족들을 데리러 북쪽으로 올라간 사이 휴전 협정이 맺어져 남과 북이 갈라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증조할아버지는 북쪽으로 갔으며, 남쪽에 남은 것은 할아버지뿐이다.

03 이 글에서 할아버지는 열세 살의 나이에 홀로 남쪽에 남아 이산가족이 되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이산가족은 할아버지가 열세 살 때 헤어진 가족들이며, 현재 남쪽에 있는 삼촌과 할아버지는 이산가족이 아니다.

04 삼촌이 가져온 통 속의 흙을 통해 글쓴이는 할아버지의 사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05 글쓴이는 삼촌이 가져온 흙으로 할아버지와 철쭉나무를 심으며 이 나무의 이름을 '엄마'로 짓자고 제안하는데, 이는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할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는 내용을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6 ㉡에는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증조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글쓴이의 정서가 담겨 있다.

07 이 글은 글쓴이가 할아버지와 철쭉나무를 심었던 일을 바탕으로 자신의 느낀 점과 정서 등을 표현한 글이다. 철쭉나무를 통해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은 글쓴이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리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ㄷ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며, 이 글에도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ㄱ은 할아버지와 철쭉나무를 심은 후에 한 생각으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③ ㅁ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이 글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 글에는 해당 부분에 할아버지가 실향민이 된 사연이 나타나고 있다.
④ 이 글에는 할아버지가 통 속의 흙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신 뒤에, 그 흙으로 철쭉나무를 심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ㅂ과 ㅅ은 위치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보기〉와 같이 내용을 생성한 뒤에는 적절하게 내용을 조직하고 '처음–가운데–끝'으로 배열하여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09 이 글의 '가운데'에서는 삼촌이 흙을 담은 통을 가지고 온 것을 계기로 글쓴이가 할아버지의 사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후 할아버지가 실향민이 된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할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할아버지의 방에 있는 그림을 궁금해한 것은 이 글의 '처음'에 나타나고 있다.
③ 통 속의 흙은 삼촌이 구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
⑤ 할아버지가 나무 심기를 제안한 것은 이 글의 '끝'에 나타나고 있다.

10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서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11 '그날이 기다려진다.'를 ㉠과 같이 고치면, 글쓴이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12 ㉤는 철쭉꽃이 피어 할아버지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글쓴이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문장으로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글쓴이가 반 대표로 축구 경기에 나가 골을 넣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기 전에 작성한 개요이다. 이와 같은 글의 처음 부분에 축구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경기에서 진 후 한동안 축구를 하지 않았던 경험은 이 글의 핵심적인 사건이므로, '가운데'로 위치를 옮기는 것은 적절하다.

③ 축구를 하지 않는 동안 피아노를 배운 것은 축구에 대한 경험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글쓴이가 다시 축구를 하게 된 이유를 추가하는 것은 내용 전개상 자연스러우며,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적절하다.
⑤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가 골을 넣었을 때 느낀 감정을 추가하는 것은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적절하다.

14 고치기 전의 문장에서는 당시의 마음을 '너무 속상했다.'로 간단하게 표현하여 '나'의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친 후의 문장에서는 미안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나'의 정서가 잘 드러난다.

15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경험과 관련하여 글에 쓰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는 모두 진솔한 내용이어야 하며, 내용을 꾸며서 생성해서는 안 된다.

16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고, 독자는 글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은 소설의 구성 단계이다. 수필은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ㅁ.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다루는 글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7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다른 유형으로 바꾸어 쓰더라도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정서를 과장 없이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따라서 재미있고 웃기는 경험만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 학습

본책 176쪽

1 ② 2 ② 3 ④

1 ②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며, 자신의 정서나 느낀 점 등을 찾기 어려우므로 노래 가사로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

2 경험을 붙일 노래를 선정할 때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경험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따라 부르기 좋은 음정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긴 노래를 찾기보다 가사를 채우기에 적절한 길이의 노래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

3 자신의 경험을 노래 가사로 만들 때는 리듬이 있고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어나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잘 드러내고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⑤ 노래 가사의 특징을 살려서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고난도 UP 심화 문제

본책 177~179쪽

01 ② 02 ⑤ 03 ④ 04 황해도 연백에서 가져온 흙으로 심은 나무로, 할아버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나무이다. 05 ⑤ 06 ㄴ, ㄹ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ㅁ–ㄷ–ㅂ–ㄱ–ㅅ의 순서로 배열한다. 07 ⑤ 08 ③ 09 ① 10 개요를 작성하면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할 수 있다. 11 ①

01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담은 글이다. 독자는 글쓴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 정서, 느낀 점 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02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읽은 독자는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와 같은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②, ③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은 검증하거나 비판하기보다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이해하며 읽는 것이 좋다.
④ 운율은 주로 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글에서 운율은 찾아보기 어렵다.

03 글쓴이는 삼촌이 흙을 담은 통을 가지고 온 것을 계기로 할아버지가 실향민이 된 사연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연을 할아버지께 직접 들었는지의 여부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통 속의 흙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 감정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② (라)에서 글쓴이는 내년 봄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나 할아버지가 위안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③ (나)에서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통 속의 흙을 꺼내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가슴에 품어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그동안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04 철쭉나무는 글쓴이가 삼촌이 가져온 흙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심은 나무이다. 또한 증조할머니가 좋아하는 철쭉꽃이 활짝 피어 할아버지에게 위안을 주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나무이다.

평가 기준	확인
황해도 연백에서 가져온 흙으로 심은 나무라는 내용을 썼다.	
할아버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나무라는 내용을 썼다.	

05 이 글은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글이므로, 경험을 과장하거나 꾸며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사과를 먹으며 삼촌과 이야기한 내용과 동생과 이산가족 방송을 보았다는 내용은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이 글은 글쓴이가 할아버지의 사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할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심게 되는 흐름에 따라 'ㅁ-ㄷ-ㅂ-ㄱ-ㅅ'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삭제해야 하는 내용의 기호와 그 이유를 알맞게 썼다.	
남은 기호를 이 글의 순서에 맞게 배열하여 썼다.	
〈조건〉에 제시된 형태로 썼다.	

07 이 글을 다른 유형으로 바꿀 때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곧 만날 것에 대한 기대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편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만화는 그림을 통해 감정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글쓴이의 표정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다.

②, ③ 영상으로 바꿀 때는, 할아버지의 사연을 내레이션으로 전달하거나 슬픈 장면에 배경 음악을 삽입하는 등의 효과를 추가할 수 있다.

④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로 바꾸면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08 이 노래 가사는 책 읽는 습관을 만들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책 읽기를 싫어해서 힘들었지만 현재는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경험과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으나, 자신의 감정을 비유를 활용해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9 ㄱ은 글쓴이가 직접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곳에 견학을 갔던 것이므로, 직접 경험한 일이다. 그 경험을 통해 엄마, 아빠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나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웠던 감정 등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다.

10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면 '처음 – 가운데 – 끝'의 구조로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개요를 작성하면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배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11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 개요에 따라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글을 쓰고, 예상 독자에 맞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또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ㄷ. 제목에는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면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ㄹ. 글을 쓰기 전 육하원칙에 따라 경험을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나, 반드시 육하원칙에 따라 글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80~183쪽

01 ⑤ **02**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03** ③ **04** ③ **05** ⑤ **06** ④ **07** 수남의 부도덕성이 해소되고 양심과 순수성을 회복하였다. **08** ④ **09** ⑤ **10** ② **11** ③ **12** ⑤ **13** ⑤ **14** ① **15** ④

01 (마)에서 보리는 가족들의 사랑을 깨닫고 소원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나자르 본주 부적을 바다에 던져 버린 것이다. 따라서 노력하여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가)에서 보리는 정우가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가 수술하면 축구도 못 하고 수영도 못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따라서 보리가 정우의 수술을 막으려는 이유는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정우의 꿈을 지켜 주기 위해서이다.

평가 기준	확인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썼다.	

03 정우는 수술 대신 축구 대회에 참가하여 준우승을 한다. 정우는 은메달 덕분에 친구들의 관심을 받아 행복해하고 있으므로, 은메달이 수술을 선택하지 않은 후회를 상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글은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 없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는 아빠가 말한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 똑같아."를 통해 잘 나타난다. 따라서 자신도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겠다고 말한 ③이 이 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은정 아빠는 자신이 정우를 도와준 것이 아닌 정우가 스스로 해낸 것이라 말하고 있다.
②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상관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내적 갈등에서 벗어난 것으로,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다.
④ 고모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더 중요시하여 가족들에게 수술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정우의 비밀을 지켜 준 것은 아니다.
⑤ 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 거짓말을 했지만, 이는 모두에게 상처를 준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05 이 글은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의 부도덕성을 순수한 소년인 수남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수남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 이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반성하고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며,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② 낮에 도둑질을 한 일로 안절부절못하며 내적 갈등을 겪던 수남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후 평정심을 되찾으며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③ 도덕적인 인물인 아버지와 부도덕적인 인물인 주인 영감이 대립되며 바람직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④ 이 글은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사, 주인 영감, 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06 수남은 자신이 낮에 한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고 있다. 도둑질을 하면서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짙게 느낀 것을, 자기 내부에 부도덕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07 이 글에서 '누런 똥빛'은 부도덕성과 비양심성을 의미한다. 수남의 얼굴에서 누런 똥빛이 가셨다는 것은 부도덕성이 해소되고 양심을 회복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누런 똥빛'의 의미인 부도덕성을 바르게 쓰고, 이것이 해소되었다는 내용을 썼다.	
수남의 양심과 순수성이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담아 썼다.	

08 이 글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로, 일상생활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느낀 점을 바탕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와 같은 글인 수필은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② 경험을 통해 느낀 점과 정서를 과장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주관적인 성격의 글이다.
③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장하거나 꾸며 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글이다.
⑤ 사회적인 문제보다 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다루는 글이다.

09 이 글은 글쓴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심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을 향한 할아버지의 그리움과 할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글쓴이의 정서를 담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10 글쓴이는 할아버지 방에 있는 그림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 그림은 할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증조할머니의 빛바랜 사진으로, 할아버지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다.

11 글쓴이는 전쟁이나 이산가족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2 ㉡은 할아버지가 무엇을 끌어안고 계셨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보기〉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3 영상으로 담기 어려운 내용은 내레이션이나 자막을 적절하게 넣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전달하려는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넣으면 영상으로 만드는 의미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친구와의 경험을 글감으로 하는 글에서 마라톤의 규칙을 설명하는 것은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처음'에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구와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친구와 매일 달리기 연습을 하며 친구와의 우정이 돈독해진 경험을 쓴다면 이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친구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느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다면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⑤ 친구와의 우정을 주제로 하고 있는 글이므로 '끝' 부분에 이후에도 함께하자는 친구와의 약속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15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 중 진솔하게 정서를 표현할 경험인지 고려하는 것은 글을 쓰는 단계가 아니라 글감을 정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MEMO